

광 고

원양산업

제 1166 호
(2024년 2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협회, 2024년도 회장단 오찬 간담회 개최 / 4
- 협회, 2024 해양수산 전망대회 참석 / 5
- 협회,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배포 및 안내 / 6
- 협회, 22대 총선 선상투표 관련 알림 및 안내 / 6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 '24년 1월 보고 내용 / 7



이달의 요리

- 메로 조림 / 12



해외수산물정보

■ 국제유가 동향

- 2월 싱가포르 MGO 가격 전월 대비 상승 / 13

■ 참치어업 동향

- 중서부태평양 12월 선망 어획량 13만 7,376톤 / 14

- 방콕 가다랑어 1월 가격, 톤당 1,450 달러 / 15
- 日 12월 냉동 눈다랑어 수입 단가, kg당 764엔 / 15
- 日 냉동 참치류 12월 수입 통계 발표 / 16
- WCPFC 선박 데이터 발표 / 17
-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톤당 1,425유로 / 17
- 동부태평양 눈다랑어 어획량, 30년간 최저치 / 18
- 나우루, 대만 외교 단절 선언 / 19
- 베트남 참치 수출, 어려운 상황 직면 예상 / 20
- 베트남 참치 통조림 유럽에서 중요 위치 차지 / 20
- 태국, 참치 통조림 수출량 최저치 기록 / 21
- 스페인, 전 RFMO의 상업 참치종 동시 규제 주장 / 22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인 EU 어선 / 22
- 황다랑어 움직임, 바다 산소량에 영향 받아 / 23
- 日 연구 "참치 혈합육, 항산화 물질 풍부" / 24
- 페루, 2024년 가다랑어 어획 쿼터 소폭 감소 / 24
- 올리브유 가격 상승 참치 업계 부담 우려 / 25
- 지속 가능한 참치 주장, 英 참치 소비자 혼란 야기 / 26
- EU 업계 "참치자원 데이터 왜곡 가능성 있어" / 26
- 日 선망 신조선, 중서부태평양 출항 / 27

Contents

■ 오징어어업 동향

- 아르헨티나 일렉스 오징어 초기 어획량 적어 / 28
- 1~11월 칠레 오징어 어획량, 10만 6,829톤 / 28
- 아르헨티나 '23년 일렉스오징어 수출량 9% 감소 / 29

■ 명태어업 동향

- 러, 2023년 어획량 8.7% 증가 / 30
- 美 트라이던트社, NFI 탈퇴 / 30
- 러, 명태 A시즌 어획량 증가 예상 / 31
- 러 RFC, 청어 쿼터 보유 기업 2개사 매각 / 31
- 러 명태 공장, 신형 장비 가동 개시 / 32
- 日, 명태 24년 TAC 17만 6,000톤 제안 / 32
- 美, 러시아산 명태 수입금지 대상 확대 / 33
- 1월 러시아 명태, 청어, 대구 어획량 증가 / 33
- 일본 연육 시장에서 알래스카의 지배력 위협 / 34
- 러 명태 어획량, 사상 최고치 기록 / 35
- 러, 2027년까지 100척 이상의 어선 건조 예정 / 36
- 일본의 전통 명태 요리가 점점 더 비싸져 / 36
- 러 명태 기업, 생선 공장에 5,800만 달러 투자 / 37

■ 콩치어업 동향

- 대만 콩치조업선 대다수, LED로 전환 / 38

■ 각국 수산 동향

- 태국, 원자력청, 일본 수산물 “안전” 발표 / 39
- 러, 영국과의 어업협정 파기 준비 / 39
- 우크라이나, 남극해에 연구원 파견 / 40
- 냉동 수산물, 10년 내 1.5배 이상 성장 전망 / 40
- 日 2023년 수산물 수출액 9% 감소 / 41
- 태평양 넙치 어획량 한도 삭감 / 41
- 베트남, 수산물 수출 증대 위해 CPTPP 활용 / 42
- 러시아 어류 사료 생산량 40% 증가 / 42
- 美 매체, “생선 섭취의 이점” 분석 / 43
- 나스닥 상장社, 최초의 3D 프린팅 새우 출시 / 45



쉬어가는 난

- 바다의 마음 - 이도윤 / 46



국내 수산 정보

- 1월 오징어 국내 동향 / 47
- 1월 명태 국내 동향 / 49
- 어획량 급감한 오징어 자원, 해외 대체어장 찾아 / 51
- 선박 증서 14종, 2월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 / 52
- 해수부,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 발표 / 53
-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남극 응급 환자 긴급 지원 / 54
- 해수부 김정례 主 국제수산물기구 총회 의장 선출 / 55
- ‘남극 정보과 과학기지’ 설립 10주년 맞아 / 56

협회, 2024년도 회장단 오찬 간담회 개최

협회 예산 등 논의



우리 협회 회장단 간담회가 지난 2월 6일 협회 인근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회장단 간담회에는 우리 협회 윤명길 회장을 비롯하여, 경양수산 박길주 사장, 남북수산 최용태 회장, 동원산업 민은홍 사장, 동원수산 왕태현 사장, 사조산업 김치곤 사장, 신라교역 김호운 사장, 정일

산업 전선중 부사장 <이상 회사명 가나다순>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협회는 회장단에 2024년도 협회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 편성 방침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아울러 협회 및 회장단은 차기 협회장 선임 및 2024년도 이사회·정기총회 일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협회, 2024 해양수산 전망대회 참석

해양수산 인사 1,000여 명 한자리



우리 협회는 1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4 해양수산 전망대회’에 참석하였다.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해양수산부, 관련 기관 및 단체 1,000여 명이 함께한 행사로 글로벌 거시경제 및 해양수산 전망을 다루는 총괄 세션과 수산·어촌, 해운·물류·항만, 해양 등 3개 분야별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올해로 열다섯 번째를 맞이한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해양수산업 전망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초 개최되고 있다.

이번 전망대회에서의 예측에 따르면 2024년 세계

경제는 글로벌 상품교역과 물가안정에 따른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 해양수산업은 전년보다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산업은 인건비, 생산 원가 상승 우려에도 수산 분야 매출은 0.3%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예측과 전망을 통한 대응과 준비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제언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해양수산업 미래를 구현하겠다고 하였다.



협회,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배포 및 안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우리 협회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제작한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배포 및 안내하였다.

해당 '20문 20답' 주요 내용에 따르면, 선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를 산정할 시 포함된다. 또한 선박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모든 사업장과 본사 상시 근로자를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국인 선원 및 외국적 선박 소유자에 대한 적용의 경우, 근로자는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또한 외국항에서 외부 작업인원의 과실로 외국인 선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사고 발생 원인이 사업주 등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에 있다면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안전보건담당이사(안전보건 업무 최고 책임자)를 선임하더라도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경우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 수 없다.

해당 자료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서도 전자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해수부는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개최 일시는 2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신관 2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이다. 업체별로 2명까지 설명회에 참석 가능하며, 참석 신청 기한은 2월 20일까지이다.

협회, 22대 총선 선상투표 관련 알림 및 안내

2월 19일~23일 2차, 3월 4일~8일 3차 모의시험 실시 외

우리 협회는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의 선상투표와 관련, 선상투표 모의시험 실시 및 선상투표 신고 등의 사안에 관하여 안내하였다.

선상투표 신고 기간은 2024년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5일간이며, 투표용지 및 후보자 정보 자료 수신일은 4월 1일, 투표 기간은 4월 2일부터 5일까지이다.

한편, 선상투표 모의시험 실시 계획은 1~3차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1차 모의시험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되었다. 2차 모의시험은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차 모의시험 참여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상투표 대상 선박을 대상으로, 3차 모의시험은 3월 4일부터 8일까지 1, 2차 모의시험 미참여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1,500
	3.4~10kg	1,400
	1.8~3.4kg	1,300
눈다랑어	10kg~	1,350
	3.4~10kg	1,350
	1.8~3.4kg	1,300
가다랑어	3.4kg~	1,350
	1.8~3.4kg	1,300
	1.5~1.8kg	1,150

나.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유로/톤)	조사일
다카르항	-	625	'24.1.26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날개다랑어	10kg 상	2,900	로인가공용(PAFCO)

나.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TOTAL	MGO	1,163	'24.2.9

박상천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관



박상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선박 침몰 사건 발생

- 지난 1월 30일 시타로 지역에서 항해 중인 없이 악천후 속 불법 항해로 선박이 침몰하여 사망 2명 외 승객 10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 해양산업 관심

- 해양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어업종사자가 130만 명에 불과하며, 대부분 영세어업 수준으로 아주 열악한 상황이다.
- 이번 대선을 통하여 어장 설정, 어업관리, 연료 보조금 확대, 어로 장비 지원, 냉동창고 설치 등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대선 후보를 통해 제시되어 향후 인도네시아 수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kg)
도미	체장 18cm	3.82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	조사일
PERTAMINA	MDF	970	'24.1.17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장 동향

- 아메리칸 사모아 및 연근해 쿡아일랜드 어장에서 날개다랑어를 평균 0.5~1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를 평균 0.2~0.4톤을 어획하여 전월보다 어획량이 다소 감소하였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라운드	1,450
눈다랑어	라운드	1,250
가다랑어	라운드	1,250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gal)	조사일
클리퍼오일	디젤	3.12	'24.1.8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장 동향

- 트롤 조업선은 통상 1월부터 오징어 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나, 전혀 어획이 되지 않아, 오징어 어획을 포기하고 다른 조업지에서 남방대구와, 체장메기 등을 어획하고 있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남방대구	2L	3,250
	L	3,250
	M	2,900
	S	2,700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더니든	MGO	1,116	'24.1.31



이동춘 모리셔스 명예해양수산물관



이동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수산 동향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해양 및 수산 권고에 따라 모리셔스 어업 및 해양 자원법을 폐지하고 '2023 어업법'을 시행하였다.
- 새로운 어업법은 해양 자원의 관리와 보호, 어업 및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불법어업활동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난파선 처리, 폐기 어선 관리, 어선 등록 해지 및 어선의 표시 및 불법 구조물 사용 중지 등의 규정도 도입하였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유로/톤)
황다랑어	혼합	1,500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VIVO	MGO	995	'24.2.8

이상우 아르헨티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상우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오징어어업 동향

- 일렉스 오징어 조업은 44도 선에서 어군을 찾아 매우 좋은 조업 결과를 창출하였다.
- 어체 크기는 1항차에서 L 사이

즈까지 어획되었으나 대부분은 S 및 M 사이즈이다.

- 첫 입항은 25일 만에 이루어졌으며, 700톤을 하역하였다.
- 첫 항차에서 큰 어체가 어획되는 것은 좋은 징조로 보이지 않는다. 오징어의 소멸 시기가 짧아 3항차 이후에 어획량이 저조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오징어 최초 어획량은 일일 평균 2~5톤으로 양호하지 않았으나, 어장 발견 이후 2배에 가까운 조업선이 합류하며 더 정확한 어장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일 평균 어획량은 45~55톤으로 증가하였다.
- 현재 남위 44도~45도 사이 어장에 55척의 채낚기 선박이 조업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어획량은 5~15톤 사이로 감소하였다.
- 기존 어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오징어 이동에 관한 연구 부족으로 모든 것이 불규칙하고 불안한 상황으로, 조업선은 다른 어장을 찾아 더 남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르헨티나 수산과학원은 두족류에 대한 자원조사 예정으로 기존의 어장 외에 다른 어장을 확보하는 긴급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나. 조업선 응급 환자 안전 이송

- 2월 2일 'SUR ESETE 707' 선박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응급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대사관과 해경의 협조로 약천후 속에서도 지역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무사히 이송하여 현지 재수술을 마쳤다.

다. 포클랜드 조업 자제 요청

- 아르헨티나는 말비나스제도(포클랜드제도)를



국가 분쟁지역으로 선포하고 제도 되찾기 운동을 시작한 후 한국대사관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 이번 조업선 환자 문제 해결 후 아르헨티나는 영국에 의해 입어허가를 받는 대한민국 국적선의 조업 자제를 요청하였다.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L)	조사일
Epsol YPF	MGO	1.640	'24.2.8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

가. 참치 선망선 화재 발생

- 지난 1월 2일, 수리 조선소 수역에 묘박 중이던 벨리즈 국적의 참치 선망선 'Hamonia 1호'가 전선 합선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선체가 소실되었다. 1974

년 건조하여 ICCAT 선박 등록부에 등재된 이 선박은 2015년부터 벨리즈 국적으로 조업하였으며 선박 노후로 보험 가입, 수리 및 대체선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2,150
	~10kg	1,720
가다랑어	3.4kg~	1,630
	1.8kg~	1,580
	~1.8kg	1,430
	~1.5kg	1,280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GOIL	MGO	970	'24.1.31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

가. ODA 사업 추진

- 파푸아뉴기니(이하, PNG) 수산청 초청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2018년 PNG를 방문하여 PNG 연구센터 설립 지원을 제안받았으

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실천이 지연되었다.

- (주)에코트라 지식산업연구소 직원이 2월 4일 PNG를 방문하여 수산청, 대사관, 수산협회 등과 회의를 통하여 현지 타당성 조사 및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나. 수산청 인적 혁신 도모

- 수산청의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업무에 따라 수산업계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무원의 부패 및 업무 지연 개선을 통한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근무 평가를 통한 인적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다. 폭동으로 계엄령 선포

- 중앙정부의 개인소득세 징수에 경찰이 반발하여 치안 활동을 중단하여, 1월 10일 폭동이 발생하여 정부는 2주간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 대부분의 대형 슈퍼마켓이 방화 및 약탈로 재산 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한국 교민의 경우 재산상 피해 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이번 폭동으로 중국 및 인도 유통업체가 큰 피해를 보았으나, 수도 외 지방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관련 책임부처 차관급이 해임되었다.

나.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TWL Logistics	디젤	851	'24.2.6

〈 게재 순서: 명예해양수산물관 성명 가나다순 〉



메로 조림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메로 140g 1팩, 간장 1큰술, 마른고추 1개, 생강술 1큰술, 마늘 1개, 생강 1쪽, 식용유 1.5큰술

<조림 채소>

당근 2cm 1토막, 표고버섯 1/2개, 대파 1/4대, 피망 1/3개, 양파 1/4개

<조림장>

생강술 1/2큰술, 간장 1/2큰술, 물 3큰술, 설탕 1작은술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메로를 두 토막 내어 후추를 약간 뿌리고 간장과 생강술에 20분 정도 재운다.
- ② 마늘과 생강은 얇게 슬라이스하고 마른 고추는 송송 썰어 준비한다. 조림 채소는 사방 1cm 크기로 잘라준 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 생강, 마른 고추를 넣고 볶아주면서 향을 낸다.
- ③ 향을 낸 기름에 재워두었던 메로(양념은 뺀)를 앞뒤로 노릇하게 굽는다.
- ④ 메로가 노릇하게 익으면 썬 채소를 메로 주변에 넣고 조림장을 뿌려준다. 뚜껑을 열고 채소를 알맞게 익히고 조림장이 약간 남도록 졸여낸다.



2월 싱가포르 MGO 가격 전월 대비 상승

2월 9일 기준 825달러

2월 9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0.66달러, WTI 가격은 76.84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82.19달러를 기록하였다.

2월 9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가격은 톤당 825달러로 1월 9일(814달러) 대비 약 1% 상승하였다.

2월 평균(2.1~2.9) 가격은 816달러로 전월 평균(1.2~1.31)인 796달러 대비 약 2% 상승하였다. 전년 1월(1.1~1.31) 평균보다는 1% 하락하였고, 전전년 1월과 비교하면 2% 하락하였다.

2024년 평균(1.2~2.9) 가격은 801달러로 전년(1.1~12.29) 평균과 거의 같았고, 전전년 평균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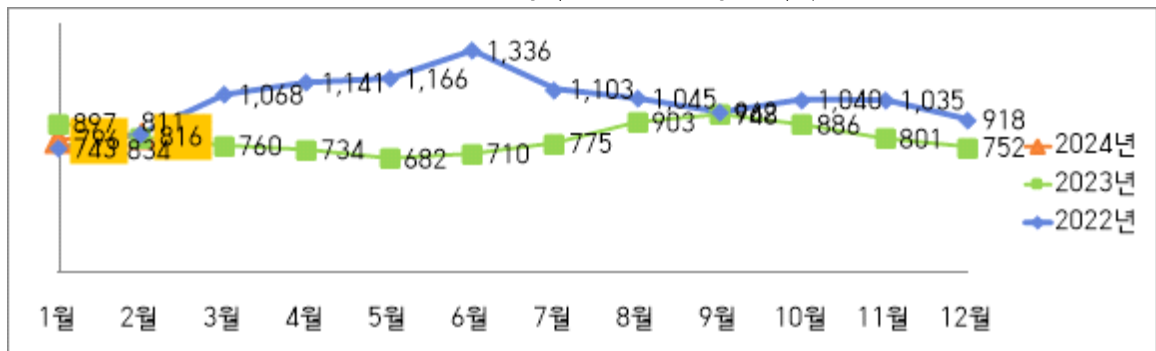
23% 하락하였다.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가자지구 휴전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국제 정세 리스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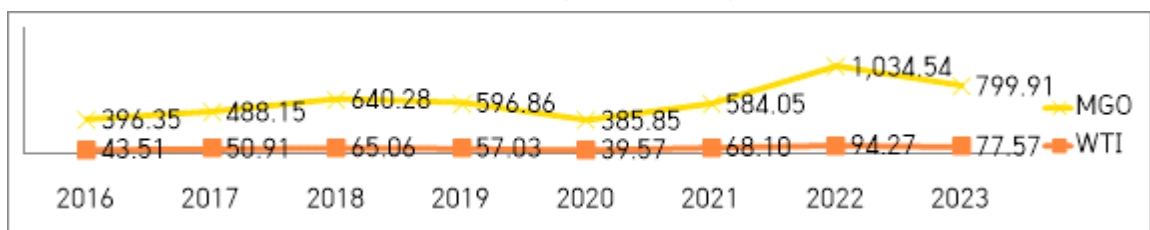
OPEC은 월간 보고서에서 2024년 세계 석유 수요가 1억 440만 b/d로 전년 대비 225만 b/d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세계 항공 수요 회복, 석유화학원료 수요가 올해 석유 수요 증가세를 견인할 전망이다.

반면 미국 1월 소비자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금리 인하 시기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 연도별 월별 싱가포르 MGO 평균 가격 〉



〈 연도별 MGO, WTI 평균 가격 〉





중서부태평양 12월 선망 어획량 13만 7,376톤

12월 전재량, 전월 대비 12% 증가

중서부태평양 12월 선망 참치 어획량은 11월 대비 7%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5년간 12월 어획량 중 최대치였다. 어획물 중 가다랑어의 비중은 감소하였고, 반면 대형 황다랑어 어획량은 증가하였다.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2월 태평양 도서국 EEZ와 공해 어획량을 모두 포함한 전체 어업 노력량은 12% 증가하였다. 선박일수제도(VDS) 사용량은 11월 대비 16% 증가한 3,367일이었다. 키리바시 EEZ 및 주변 공해와 같은 동부 수역에서의 조업은 감소하였고, 파푸아뉴기니(PNG), 마셜제도, 투발루 수역 조업은 증가하였다.

중서부태평양 2023년 12월 어획량은 13만 7,376톤이며, 대형 황다랑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참치종 어획량이 소폭 감소하였다. 2023년 12월 어획량은 2019~2022년 동안의 12월 어획량(10만~13만 톤) 평균보다 25% 더 많았다.

키리바시 EEZ 어획량은 약 4만 8,000톤, 공해 어획량은 1만 7,900톤이었다. PNG(어획량 약 2만 톤), 솔로몬제도, 나우루 등 타 수역에서의 어획량 또한 증가하였다.

일일 어획량은 35톤으로 11월 대비 16% 감소하였으나, 2023년의 다른 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솔로몬에서의 일일 어획량은 전월 대비 73% 증가한 일일 48톤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다. PNG 일일 어획량은 46톤, 키리바시 일일 어획량은 35% 감소한 30톤이며, 공해상에서는 34톤이다.

가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29톤으로, 11월 일일 어

획량인 35톤 대비 급감하였다. 그러나 2019~2022년의 일일 26톤과 비교하면 45%나 많은 수준이다.

대형(9kg 초과) 황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4톤으로 11월 대비 115%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고치인 2023년 6월의 일일 9톤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적은 수준이다. 소형 황다랑어 및 소형, 대형 눈다랑어의 일일 어획량은 각각 1.4톤, 0.3톤, 0.1톤으로 모두 감소하였다.

2023년 12월 중서부태평양 전재량은 약 8만 6,500톤으로, 11월 대비 12%나 증가하였다. 이는 2023년 10월(약 8만 9,000톤) 다음으로 많은 월간 전재량이다.

태국 통조림 가공업체들이 충분한 재고를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12월의 많은 공급은 향후 몇 주 내로 방콕 가다랑어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

12월 파푸아뉴기니(PNG) 수역에서 선망선단의 조업 노력량이 증가하면서 많은 어획량을 기록하였고, 그 결과 PNG 항구 양륙량은 3만 2,000톤을 기록하였다.

두 번째로 많은 양륙량을 기록한 곳은 마셜제도의 마주로 항으로, 11월 대비 27% 감소한 약 2만 4,000톤을 기록하였다. 키리바시에서의 12월 전재량은 2만 1,000톤으로 감소하였다.

일일 어획량 17톤을 기록한 투발루의 전재량은 5,000톤을 기록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1월 23일자, 24일자



방콕 가다랑어 1월 가격, 톤당 1,450 달러

이전 가격 대비 소폭 하락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방콕 가다랑어 원어 계약은 톤당 1,450달러 선에서 체결되고 있다. 이는 1월 초 보도된 가격인 톤당 1,480달러 대비 2% 하락한 수준이다. 방콕 가다랑어 원어 가격은 지난 8월 이후 하락세였으나 12월부터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방콕의 냉동 저장고는 가득 찬 상태이고, 운반선은 원어 하역을 기다리고 있다. 원어가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 여러 시장 참여자는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꺼리고 있다.

태국 가공업체의 창고는 지난해 구매했던 고가의 원어 및 2023년 후반 가다랑어 가격이 하락했을 때 구매했던 원어로 가득 찬 상태이다. 이는 가공업체 측이 이미 원어 재고 가치에 타격을 입은 상태이며, 많은

공급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추가적 압력을 가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최종 구매자 측의 완성품에 대한 수요는 적정 수준이다. 한 태국 가공업체 측에 따르면 이들의 공장은 최대치로 가동 중이며, 다른 가공업체 측은 낮은 주문량과 원어 재고로 인하여 생산을 줄였다.

반면, 선사 측은 어획물 가격 급락을 원치 않는 상황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12월 나우루협정당사국(PNA) 항구에 8만 6,500톤의 원어가 전재되었기 때문에, 향후 몇 주 동안 가다랑어 공급 과잉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Atuna, 2024년 1월 9일자

日 12월 냉동 눈다랑어 수입 단가, kg당 764엔

11월 대비 10% 상승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참치류의 12월 수입 실적은 신선·냉장 제품 수입량 372톤(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 수입액 7억 400만 엔(40% 감소), 냉동 제품 수입량 1만 5,219톤(8% 감소), 수입액 170억 1,300만 엔(40% 감소), 가공품 수입량 3,222톤(4% 증가), 수입액 27억 7,800만 엔(10% 증가)이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 제품의 12월 평균 수입 단가는 kg당 764엔으로, 11월 가격(kg당 696엔) 대비 10% 상승하였다. 최고점을 기록했던 2022년 12월에 비하면 29%나 하락하였으나, 이후 1년에 걸쳐 하락세를 이어간 끝에 비로

소 상승세를 기록하였다. 12월에 접어들면서 인도양 냉동 눈다랑어 대만선 일선매입(一船買い, 어선 한 척의 어획물을 개체당 무게 상관없이 사전에 계약한 가격으로 사들이는 매입 방식) 가격이 호전된 영향으로 관측된다.

일본의 2023년 눈다랑어 수입량은 총 4만 7,796톤으로, 2022년 수입량보다 3,256톤(7%) 증가하였다. 유럽 등지로 판매될 예정이었던 어획물이 현지 경제 악화 영향으로 일본에 유입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2월 6일자



日 냉동 참치류 12월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눈다랑어 12월 359톤, 2023년 총 2,988톤 수입

〈 2023년 12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날개다랑어	한국	-	96	99	217	155	244	73	27	7	29	14	76
	대만	27	4	281	473	437	21	492	261	552	3,543	587	412
	바누아투	-	1	131	198	353	-	1	-	-	75	230	216
	기타	105	42	3	-	31	125	253	447	403	581	611	392
	소계	133	144	396	888	975	391	818	735	962	4,227	1,441	1,097
황다랑어	한국	173	217	262	92	58	505	329	214	305	164	426	307
	중국	54	338	265	304	177	537	583	513	163	252	464	299
	대만	1,295	1,668	1,245	1,793	1,865	1,240	655	941	1,138	1,009	1,097	1,129
	필리핀	987	245	74	122	121	-	-	-	-	-	-	-
	인니	26	94	164	67	17	-	-	25	-	-	3	25
	미국	-	-	-	-	-	-	-	-	-	-	-	-
	바누아투	56	168	400	251	101	127	103	133	12	69	119	139
	피지	16	12	28	-	18	4	-	-	75	-	10	-
	카리바시	4	2	13	3	-	-	50	25	-	42	6	-
	마셜제도	180	1	197	-	267	124	-	50	50	-	-	-
	기타	1,662	692	3,465	1,106	1,975	1,781	1,253	814	1,196	497	256	928
	소계	4,453	3,437	11,209	3,738	4,598	4,317	2,973	2,714	2,940	2,034	2,382	2,827
눈다랑어	한국	84	136	126	513	112	559	275	175	257	109	243	359
	중국	136	373	949	558	479	1,115	977	1,097	607	544	608	651
	대만	1,717	1,538	2,639	2,852	2,757	2,284	1,410	2,707	2,600	2,796	2,151	2,573
	필리핀	-	-	-	-	-	-	-	-	-	-	-	-
	인니	1	30	8	8	7	-	-	-	-	-	-	-
	세이셸	562	280	137	364	368	686	298	645	470	265	101	515
	바누아투	41	309	484	613	232	82	62	306	107	160	201	419
	기타	36	82	40	117	52	151	226	66	54	45	30	25
	소계	2,578	2,748	4,385	5,026	4,007	4,918	3,247	4,996	4,095	3,918	3,335	4,543
남방참다랑어	한국	-	132	-	-	-	-	-	-	102	-	790	57
	대만	6	10	5	-	-	-	-	-	72	226	188	9
	호주	-	-	-	-	-	20	717	1,561	5,041	115	-	-
	소계	-	-	-	-	-	-	-	-	5,215	342	978	66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2월 6일자



WCPFC 선박 데이터 발표

日, 중서부태평양 최대 선단 보유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WCPFC)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총 3,178척의 어선과 비(非)어선이 중서부태평양(이하, WCPO)에서 활동하고 있다. 일본이 가장 많은 선박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 선단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연승선이 1,906척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선망선(460척)과 운반선(392척)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WCPO 최대 선박 보유국인 일본의 선단은 연승선 323척, 선망선 65척, 운반선 86척, 채낚기선 62척, 지원선 50척, '기타(Others)'로 분류된 선박 32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만은 540척의 대형-소형 연승선과 29척의 선망선이 WCPO에 등록되어 있다. 이들은 2022년

WCPO에서 25만 8,118톤의 참치류를 어획하였다.

중국은 WCPO에서 469척의 연승선과 79척의 선망선, '기타'로 분류된 14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선단 보유국이지만 태평양에서의 선박 수는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이다. 중국은 2022년 중서부태평양 선망 어업에 진출하였고, 최근 일부 노후 선박을 신조선으로 대체하였다.

EU는 WCPO에서 선망선 3척만을 보유 중이며, 이들은 모두 스페인 국적선이다. 연승선은 모두 24척이며, 13척은 스페인 국적선이고 11척은 포르투갈 국적이다. WCPFC에 등록된 필리핀 국적 운반선이 110척이고, 지원선은 190척이다.

* 출처: Atuna, 2024년 1월 10일자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톤당 1,425유로

국제적 상황 영향으로 인도양 외부 수출 어려운 상태

인도양 냉동 가다랑어 원어 가격은 톤당 1,425유로(약 1,551달러)로 전월 대비 하락하였다. 가공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던 12월 말 가격은 톤당 1,525유로였다. 현지 업체는 가다랑어 가격으로 톤당 1,400~1,450유로 수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선망선단이 인도양 외부로 어획물을 판매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방콕과 만타의 관심은 현지점에서는 낮은 편이다. 게다가 방콕은 중서부태평양의 많은 어획량으로 인하여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며, 인도양에서 만타

까지 운송하는 경로는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의 상황으로 인하여 원활하지 못한 상태이다.

EU 선망선단의 일부가 모잠비크 해협 근처에서 조업하였으나, 악천후로 인하여 참치가 모리셔스와 세이셸 EEZ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IO의 기상 조건 변화로 인하여 참치의 이동 패턴이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황다랑어 어획량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황다랑어 원어 가격은 톤당 2,200유로(약 2,397달러)로 50유로 상승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1월 22일자



동부태평양 눈다랑어 어획량, 30년간 최저치 선망선 약 300척 전제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이하, IATTC)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동부태평양 선망 FAD 어획량은 많이 감소하여 약 30년을 통틀어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동부태평양 어획량은 2020년 최고점을 기록한 후 하락세였다. FAD 어업의 어구 1대당 어획량 및 참치 어체 길이 또한 지난 수년간 하락세이다.

동부태평양 참치어업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동부태평양 조업 선단의 눈다랑어 어획량은 6만 3,661톤이다. 이 중 70%(4만 6,690톤)는 선망선 어획이며, 연승선 어획량은 1만 6,921톤이다. 전체 어획량은 2021년 대비 20% 감소하였다.

1993년 이전까지 동부태평양 눈다랑어 어획은 대부분 연승 어획이었고, 1985년부터 1992년까지 연간 평균 8만 8,000톤을 어획하였다. 데이터에 따르면 1993년 FAD의 도입은 선망 어획량의 갑작스럽고 극적인 증가로 이어졌다.

어획량이 정점을 기록한 2000년의 연간 어획량은 14만 8,557톤이고, 눈다랑어 선망 어획량은 9만 5,282톤으로 사상 최대치였다. 이후 선망 어획량은 연간 4만 9,000톤에서 8만 4,000톤 사이를 오갔다. 이러한 어획량으로 인하여 자원량에 부담이 가기 시작하자 IATTC는 2007년에 금어기(veda)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유지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눈다랑어 FAD 어업의 어업 노력량은 1993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의 시기는 어구 1대당 어획량의 감소 및 어획물 평균 어체 크기 감소 시기와 일치한다. 2020년부터 2021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이 동부태평양 FAD 어업에 현저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20년에 조업은 급감하였으나 어구 1대당 어획량은 많이 증가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1월 25일자





나우루, 대만 외교 단절 선언 대만 합작 선사 철수 가능성 존재

대만의 주권을 지지하는 동맹국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태평양 도서국 나우루가 대만과의 오랜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친중국 노선에 합류하며 미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수년간 다수의 대만, 필리핀, 한국 참치 어선이 나우루로 국적을 전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변화는 대만 선단 및 대만의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된 지 이틀 후인 지난 1월 15일, 나우루는 대만과의 외교 관계 단절을 선언하였다. 나우루는 지난 2002년에도 중국 지지로 노선을 변경하였으나, 2005년에 다시 대만으로 노선을 전환하였다.

지난 수년간 대만 기업인 FCF와 필리핀 선사 Frabelle 등의 여러 선망선이 나우루로 국적을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태국에 양륙되는 나우루 원산 어획물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22년 나우루 국적 선

단은 방콕에 6만 4,672톤을 양륙하였다. 이는 해당 연도 국가별 양륙량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현재 중서부태평양참치위원회(이하, WCPFC)에 등록된 나우루 국적 선박은 19척이다. 참치 선박조업 일수제도(이하, VDS) 수입은 나우루의 국가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나우루의 새 동맹국인 중국이 자국 선박을 나우루 국적으로 전환하고 VDS를 활용하기를 원할 수 있으므로, 대만 합작 선사들이 철수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만 선망 선사뿐만 아니라 무역 파트너로서의 FCF의 위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나우루의 대만 국교 단절 소식에 미국 국무부는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였고, 중국 측은 이에 대하여 미국의 내정간섭이자 중국의 외교적 노력 폄하라는 성명을 밝혔다.

* 출처: Atuna, 2024년 2월 2일자





베트남 참치 수출, 어려운 상황 직면 예상

2023년 유럽 수출의 40% 이상 점유

베트남 수산물 수출 및 생산자 협회(VASEP)의 참치 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베트남의 참치 수출은 2024년에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는 불법 어업에 대한 조치가 부족으로 EU가 베트남에 경고를 유지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참치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홍해 긴장으로 운송 비용이 증가하여 참치 완제품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주요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억제되고 세계 경제가 바닥을 쳤지만, 회복 속도가 느려 많은 국가에서 참치 수입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시장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가공 및 수출 기업의 재고 수준은 높아, 베트남 참치 수출은 방해받고 있다.

또한 베트남의 현행 식품 안전 관리 규정의 미비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EU의 베트남산 참치 통조림 수입 증가는 주로 EU 내 참치 통조림 제품의 평균 가격이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2023년 말 엘니노 현상으로 인해 에콰도르의 대EU 참치 통조림 선적에 차질이 생겼다.

베트남의 최대 참치 시장인 미국은 10월과 11월에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다가 12월에 소폭 감소하였다. 2023년 동안 베트남의 대미 참치 수출액은 전년 대비 33% 감소한 3억 2,6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월 25일자

베트남 참치 통조림 유럽에서 중요 위치 차지

대 EU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

베트남 세관이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베트남산 참치 통조림은 EU 시장 수출 주요 품목으로 유럽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베트남의 참치 통조림 수출액은 약 7,100만 달러로 베트남의 대EU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2022년에 비해 28% 증가한 수치로 지속

적인 성장 추세를 보인다. 2023년 연초 몇 달간 수출량이 소폭 감소한 이후, EU-베트남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이 활성화된 후 대EU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수출 성장은 2023년에 정점을 찍었다.

* 출처: Fishretail.ru, 2024년 1월 23일자



태국, 참치 통조림 수출량 최저치 기록

총 41만 5,787톤

태국의 2023년 참치 무역액은 18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가공업체는 지난 10년간 최저 수출량을 기록하였다. 태국은 주요 수출시장에서 모두 타격을 입었으며, 특히 경제 위기를 겪은 이집트에서의 감소 폭이 컸다.

2023년 태국의 참치 통조림 수출량은 41만 5,787톤으로, 전년 대비 14%나 감소하였다. Atuna에 따르면 이는 지난 10년을 통틀어 최저 연간 수출량이다. 연간 최대치는 2014년에 기록한 58만 7,000톤이며, 두 번째로 많았던 것은 2020년 기록한 55만 9,000톤이다.

수출 단가는 톤당 4,501달러로, 전년 대비 4% 하락하였다. 2023년 3~8월 동안 원어 단가가 톤당 약 2,000달러로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하락한 상황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에는 원어 단가가 이보다 훨씬 낮았으나 통조림 수출 단가는 톤당 4,692달러였다. 이는 다양한 수출시장에서 통조림 수출이 급감하였다는 점을 암시한다.

태국의 2023년 미국행 수출량은 8만 3,544톤으로 전년 대비 14% 감소하였고, 톤당 수출 단가는 4,757달러로 6% 하락하였다. 수출품은 가다랑어와 날개다랑어로 구성되어 있다. 3분기까지 미국행 수

출량은 6만 25톤이었으나 4분기에는 2만 3,519톤만을 수출하였다.

2022년에 미국의 뒤를 잇는 수출시장이었던 이집트의 2023년 수출량은 3만 9,000톤이나 감소한 1만 8,570톤에 그쳤다. 이집트는 경제 위기로 인하여 통화 가치 급감 및 중앙은행 달러 통제 등의 사태를 겪었다.

호주는 또 다른 태국의 주요 수출시장이지만, 2023년 호주행 수출량은 15% 감소한 3만 3,244톤이었다. 호주 수출 단가는 톤당 5,060달러로 7% 하락하였다.

태국의 일본, 사우디, 리비아로의 통조림 수출량은 올해에도 증가하였다. 일본행 평균 수출 단가는 주요 수출시장 중 최고치인 톤당 5,344달러이며, 수출량도 3만 4,545톤으로 19% 증가하였다. 리비아는 지난 수년간 주로 이집트를 통하여 태국산 통조림을 수입하였으나 2022년 자국 항구를 통한 직접 수입으로 전환하였고, 2023년 수입량은 소폭 증가하였다. 태국산 통조림의 사우디행 수출량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1월 29일자



스페인, 전 RFMO의 상업 참치종 동시 규제 주장 TAC 관리 방식 단점 지적

최근 유엔 FAO가 마련한 워크숍에서, 스페인 선망 선단 협회인 대형참치냉동선생산자연합(이하, OPAGAC)의 미구엘 에레라 부소장은 모든 RFMO가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IATTC와 WCPFC는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참치 3종에 대한 어획 통제규칙과 같은 포괄적 조치를 채택하였다. 통제규칙은 조업 시 어획된 자원의 상태에 맞춰 조정되지만, ICCAT과 IOTC는 참치 3종에 대한 TAC 등의 개별적 관리 조치를 취하였으나, 에레라 부소장은 이들이 “다른 두 RFMO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라고 지적하였다.

에레라 부소장에 따르면 RFMO는 통제규칙을 사용하는 쪽이 TAC에 근거한 관리모델에 비하여 자원 관리 결정을 내리기 더 쉽다. 에레라 부소장은 TAC를 설정하려면 과학자와 회원국 간의 긴 논의가 필요하며 대부분은 참치 개체군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OPAGAC 측은 또한 ‘역사적 권리에 따라’ 국가별로 쿼터를 배정하여 어업 기회를 분배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통제 및 제재를 도입하는 방식을 옹호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1월 22일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인 EU 어선 선박 효율성 개선 위한 기술 투자와 공공정책 변화 필요

EU 참치 및 기타 어선들은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2% 감축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90만 톤에서 430만 톤으로 줄였다고 최근 발간된 유엔 무역개발회의 보고서 '어선의 에너지 전환'에서 밝혀졌다.

아시아는 가장 많은 어선을 보유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으며, 유럽과 아프리카가 뒤를 잇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EU, 일본, 영국, 북아일랜드는 지난 20년 동안 자국 어선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45% 줄였다.

EU 선단은 2000~2020년 간 탄소 배출량을 28% 줄였다. EU 어업 대표단체인 Europeche는 이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온실가스 배출원과 비교하면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전 세계 어업의 탄소 배출량은 전체의 0.1~0.5% 수준이며 전세계 어업의 배출량에서 EU는 3%를 차지한다.

* 출처: Atuna, 2024년 1월 17일자



황다랑어 움직임, 바다 산소량에 영향 받아 온난화 영향 원인

기후 온난화로 바다의 산소량이 부족해지면서, 황다랑어가 더 얇고 산소가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 반면 눈다랑어는 여전히 수심이 깊은 곳에서 머문다는 사실이 과학 논문을 통하여 발표되었다. 두 참치 종의 행동 변화는 미래의 어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양생물학(Marine Biology) 1월호에 실린 ‘저산소 환경에서 활동성이 높은 어류(Highly Active Fish In Low Oxygen Environments)’라는 논문에서, 연구진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92마리의 눈다랑어와 175마리의 황다랑어를 연구하였다. 연구진은 실험 대상의 수직적 움직임을 조사하는 것 외에도 데이터 모델링(시계열 데이터)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심의 DO(용존 산소, 물에 존재하는 산소) 농도와 온도를 비교하여 행동을 확인하였다.

두 종 모두 일반적으로 낮 동안 먹이를 찾기 위해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하며 눈다랑어는 수심 200~300m, 황다랑어는 50~150m까지 잠수한다.

분석 결과, 황다랑어의 움직임은 눈다랑어에 비하

여 DO 농도와 깊은 곳에 머무르는 시간 사이에 훨씬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황다랑어가 43m보다 더 깊은 곳으로 잠수할 경우, DO 농도는 매우 높았으나, 반면에 43m보다 얇은 곳에서 머무를 경우, DO 농도는 매우 낮았다. 이를 통하여 연구는 황다랑어가 DO 농도가 낮은 수심을 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대조적으로, 눈다랑어는 DO 농도와 관련하여 수직적 움직임 면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해당 논문은 기후로 인한 바닷속 DO 감소로 인하여 황다랑어가 수직적으로 이동하고 결과적으로 수평적인 분포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황다랑어가 더 얇은 물로 이동하면 상업적 어선, 특히 선망선에 어획되기 더욱 쉬워질 수 있다. 눈다랑어의 활동 수심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작으나, 얇은 물로 수직 이동하는 횟수가 증가하면 연승선이나 선망선에 어획되기 더 쉬워질 수 있다.

* 출처: Atuna, 2024년 1월 15일자





日 연구 “참치 혈합육, 항산화 물질 풍부”

각종 병과 스트레스 원인인 활성산소 감소 효과

참치 토로(지방이 많은 뱃살이나 등살 등의 부위)나 아카미(토로 외의 붉은 속살) 등의 살과 달리,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경우도 있는 혈합육(속살 안쪽 살과 뼈의 경계 부분의 검붉은 살)을 섭취할 경우, 생활 습관성 질환이나 스트레스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 체내에 많이 축적된다는 연구 결과가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일본 가나가와현수산연구센터, 수산연구교육기구, 성마리안나의과대학은 공동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임상 연구를 실시하였다.

가나가와현 및 동 대학 직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참치의 아카미를 주 3회씩 3주간 먹게 한 후, 3주간 공복기를 가진 다음에는 혈합육을 같은 조건으로 먹게 하였다. 각각 첫날과 마지막 날에 채혈하여 항산화 물질인 ‘셀레노네인’의 혈중 농도를 측정해 결과, 혈합육을 먹

은 후의 평균값이 아카미를 먹은 후의 약 4배나 되었다.

해당 센터는 셀레노네인이 ‘사람의 혈액에 들어가 생활 습관성 질환을 비롯하여 만병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활성산소를 직접 퇴치해 주는 물질로, 유전자 등에도 해를 끼치지 않는 자연계의 최고급 항산화 물질’이라고 설명하였다.

성마리안나의대 측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활성산소가 발생하면서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데, 혈합육을 꾸준히 섭취하면 항산화력이 높아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하였다.

참다랑어의 혈합육 함유 셀레노네인은 아카미나 토로의 약 100배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연구를 통하여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눈다랑어에도 마찬가지로 다량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1월 24일자

페루, 2024년 가다랑어 어획 쿼터 소폭 감소

3% 감소한 4만 2,415톤 설정

페루 생산부는 2024년 가다랑어 어획 할당량을 2023년 4만 3,826톤에서 3% 감소한 4만 2,415톤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20세제곱미터 이상의 저장공간을 가진 선망 어선에 적용된다.

어획 한도는 페루 해양연구소에서 결정한 생물학적, 어업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연구소의 권고사항은 페루 생산부에 제공된다. 또한, 페루 생산부는 연구소 권고에 따라 가다랑어 산란 과

정을 보호하기 위한 보존 조치를 수립 예정이다.

수동 어획 방법을 사용하는 소규모 어선이나 20세 제곱미터 미만의 선망 어선은 이러한 제한에서 제외된다. 대형 선망 어선은 최대 2톤의 허용 오차로 1항차당 최대 13톤의 가다랑어를 어획할 수 있으며, 이보다 작은 어선은 최대 5.5톤의 가다랑어를(허용 오차 0.7톤) 어획할 수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월 30일자



올리브유 가격 상승, 참치 업계 부담 우려

EVOO 톤당 9,000유로...기후 문제 등 흉작 원인

기후 문제 등으로 올리브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참치 가공 업계에 미칠 비용 상승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스페인인 전세계 올리브유 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공급국이며,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또한 주요 공급국이다. 스페인은 기후 변화로 인하여 남부 지방에 2022년부터 2023년 동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흉작이 닥쳤고, 폭염이 2024년에도 이어지면서 카탈루냐 당국이 가뭄 긴급사태 및 엄격한 물 사용 통제를 선포하였다. 이탈리아는 2023년부터 물 부족뿐만 아니라 박테리아 확산으로 인하여 올리브 생산에 타격을 입었다.

이탈리아 바리, 그리스 하나, 스페인 하옌은 전세계 올리브유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핵심 지역이다. 해당 3개 지역이 입는 타격은 타 주요 통조림 가공 국가, 특히 수출용 최종 제품에도 영향을 미친다.

참치 통조림 가공업체는 이미 작년부터 막대한 비용 상승에 직면한 상태이다. 가공업체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이하, EVOO)를 사용하려면 톤당 9,736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국제올리브유위원회(이하, IOOC)의 발표에 따르면 1월 중순 EVOO 가격은 하옌에서 톤당 9,763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9%나 상승하였다. 버진 올리브유(이

하, VO) 가격은 톤당 9,547 달러를 기록하였다.

바리의 EVOO 가격은 톤당 1만 471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상승하였다. 하나 EVOO 가격은 9,086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7% 상승하였다.

유럽위원회(이하, EC)의 추산치에 따르면 2023/24 기간 동안 세계 올리브유 생산량은 지난 5년 평균보다 29%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EC는 2023/24 기간 생산량을 241만 톤으로, 이 중 141만 톤은 EU에서 생산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흥미롭게도, EC 측은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에서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스페인의 2023/24 기간 생산량 예상치는 전년 생산량 대비 증가한 76만 6,000톤으로 추산되었으나, 이는 여전히 이전 연도들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터키는 지난 7월 EU에 대한 올리브유 수출을 제한하였고, 10월 중순에는 금지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였다. 이 조치로 터키 자국 올리브유 가격은 안정화되었으나 터키 외부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었다. 터키는 2022/23 기간에 생산량 42만 1,000톤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하였으나, 올해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Atuna, 2024년 2월 1일자



지속 가능한 참치 주장, 英 소비자 혼란 야기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42%가 MSC 인증 완료

영국 소비자들은 지속 가능한 참치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해양관리위원회(이하, MSC)의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바다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소비자의 71%가 참치를 먹지만, 그 중 거의 1/4(24%)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참치 통조림을 먹는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1년에 비해 2% 증가한 수치이다. 참치는 가장 사랑받는 수산물 중 하나이지만, 참치를 구매한 소비자 3명 중 1명(32%)은 참치를 찾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답하였다.

참치를 구매한 소비자의 약 68%는 가능한 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어획된 참치를 구매하고 싶다고 답했지만, 영국에서 판매되는 참치 종류에 만족하는 소비자는 42%에 불과하였다.

세계 참치 어획량의 약 42%가 이제 MSC 인증을 받았으며, 영국 소매 판매 참치 중 25%가 인증 제품이다.

웨이트روز 마트는 지속 가능한 참치 제품을 가장 많이 판매했으며, 전체 참치 중 79%(57개 중 45개)에 파란색 MSC 에코라벨이 부착되어 있었다.

영국과 아일랜드 소비자의 MSC 참치 제품 지출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13억 파운드이며, 지출량은 1% 증가한 15만 4,543톤을 기록하였다.

* 출처: The Grocer, 2024년 2월 5일자

EU 업계 “참치자원 데이터 왜곡 가능성 있어”

정보 왜곡 방지 위한 명확한 의사소통 중요성 강조

유럽 참치선망 업계와 과학자들은 참치자원 및 다양한 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회의를 두 차례 가졌다.

유럽 어업계를 대변하는 단체인 Europeche의 참치 그룹은 지난 1월 23일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프랑스 IRD, 스페인 AZTI와 IEO 등 각국의 어업 과학 단체와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선망 부문은 자원 회복을 방해할 수 있는 지역수산관리기구(이하, RFMO) 내 불균등한 조치로 인하여 선단에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더 나은 자원평가 추산을 위한 명확하고,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데이터 및 복구 방법론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과학자들은 부표, 소나, 참치자원의 풍부함을 결정짓는 유전자형 등에 기초한 새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과학계와 업계 대표단은 모두 정보 왜곡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평가 결과에 관한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1월 25일자, 1월 31일자



日 선망 신조선, 중서부태평양 출항

가다랑어·황다랑어 MSC 추진 중

일본 대기업 닛스이 그룹 산하에서 선망어업을 운영 하는 교와수산(共和水産)의 신조 선망선 '제78코요마루(第七十八光洋丸)호'가 지난 2월 3일 출항하였다. 해당 선망선은 중서부태평양에서 가다랑어와 황다랑어를 어획한다.

해당 선박은 산하의 또 다른 어선인 '제88코요마루(第八十八光洋丸, 2014년 갱신, 1,884톤)호'와 마찬가지로 1,094톤에서 1,788톤으로 대형화되었고, 조업 성능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환경 성능 향상 등과 함께 거주 환경이 향상되어 선원 인권을 배려하였다고 닛스이 측은 밝혔다.

교와수산 측은 '제78코요마루호'의 조업 개시에 맞춰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황다랑어 어업에 대한 해양관리협의회(이하, MSC) 인증을 신청하여 현재 심사 최종 단계에 들어간 상태이다. 인증을 취득할

경우, 교와수산 보유 선박 2척에 대한 가다랑어·황다랑어 어업의 어획물 전량이 MSC 인증의 대상이 된다.

'제78코요마루호'는 선수 형상의 개량 및 프로펠러의 개편, 연비형 오염방지 도료 채용, LED 조명 채용, 연비 실시간 모니터링 장치 등을 통하여 유류 소비량 5% 절감을 목표로 한다. 냉동 기기에는 제 88코요마루호와 같은 자연 냉매를 채용, 이산화탄소 배출량 13% 절감을 예상한다.

안전성의 확보, 노동 부하의 경감, 노동 환경의 정비 등을 도모해 국제노동기구(ILO)의 신설비 기준에 적합한 쾌적한 거주 환경을 정비하고, 고속·대용량의 광대역 위성 통신 시스템에 의한 해상 인터넷 환경을 갖추어 육상에 가까운 수준이 실현되었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2월 7일자





아르헨티나 일렉스 오징어 초기 어획량 적어

일렉스 오징어 시즌 공식 개시

지난주 아르헨티나에서 일렉스 오징어 조업 시즌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선박 대부분이 1월 12일부터 조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르헨티나 국적 선박의 어획량은 매우 적다.

남위 49°~52°에서는 1월 2일부터 조업이 시작되었고, 남위 49° 이남에서 3일 이상 조업한 선박은 1월 7일부터 남위 44° 이남에서 조업을 시작하였다. 그 외 전 선박은 1월 12일에 조업이 시작된다.

대부분의 아르헨티나 국적 선박은 새로운 시즌의 아르헨티나 오징어 어획을 위해 출항하기 전에 최종

준비를 하고 점검을 받고 있다.

1월 7일부터 조업하기 위해 12월에 출항한 조업선은 5척이다.

아르헨티나 오징어 채낚기 선주 협회장은 "현재 조업 중인 극히 일부만 하루에 2~5톤을 잡고 있으며, 아무것도 없다."라고 어획량 감소에 대하여 말하였다.

스페인의 한 경영진은 시장에서 일렉스 오징어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생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있으므로 아직 이 제품에 대한 판매는 성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월 11일자

1~11월 칠레 오징어 어획량, 10만 6,829톤

중국 내 500미 가격, 20% 상승

일본 무역업체 소식통에 따르면, 2023년 12월 하순의 중국 국내 아메리카 대왕오징어 원어 가격은 1미당 500g 이하가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한 1만 1,800~1만 2,300위안, 500g~1kg이 2~3% 하락한 1만 800~1만 1,200위안, 1~2kg이 20% 하락한 8,800~9,500위안이다.

12월 하순 시점 중국 선단은 페루 공해에서 대형 사이즈를 어획하는 것 외에, 적도상에서 소형 사이즈를 목표로 조업 중이다. 페루 공해에서의 어획량은 적당 일일 평균 10톤이며, 적도상은 어획 상황이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11월 칠레의 남미 대왕오징어 어획

량은 상사 소식통에 따르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한 10만 6,829톤이다. 또한 페루의 2023년 1~9월 어획량은 60만 8,155톤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페루 어획량은 2022년에 11월 이후로 어획량이 증가하였다. 2023년은 1~6월이 호조였으나 7~9월은 하락세를 겪었기 때문에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소식통은 전하였다.

일본 재무성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1월 일본 냉동 살오징어류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8만 2,757톤, 평균 단가는 13.6% 상승한 kg당 586엔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1월 29일자



아르헨티나 '23년 일렉스오징어 수출량 9% 감소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미국행 수출 50% 증가

아르헨티나의 2023년 수산물 수출량은 일렉스오징어 수출 감소 영향으로 2022년 대비 2.1% 감소하였고, 수출액은 2.2% 감소하였다.

아르헨티나 농축수산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2023년 수산물 수출량은 총 48만 80톤이고, 수출액은 총 17억 8,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 중 일렉스오징어 수출량은 2022년 대비 8.8% 감소한 13만 3,731톤이고, 수출액은 3.7% 감소한 3억 290만 달러이다. 그러나 일렉스오징어의 연평균 수출 단가는 kg당 2.20달러, 톤당 2,195.8달러로 약 6.4% 상승하였다.

이와 반대로, 헤이크 수출량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10만 6,692톤, 새우 수출량은 3.1% 증가한 13만 9,933톤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헤이크 수출액은 2억 6,430만 달러로 1.6% 감소하였고, 새우 수출액은 9억 400만 달러로 4.2% 감소하였다.

아르헨티나의 최대 수출 시장인 스페인으로의 수출은 전체의 15.5%를 차지하였으나, 수출량은 3.7% 감소한 7만 6,124톤을 기록하였고, 수출액은 12.1% 감소한 3억 7,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출 시장 2위는 중국으로 수출량은 14% 증가한 6만 1,942톤, 수출액은 15.8% 증가한 2억 5,89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3위는 한국으로 수출량은 7.3% 감소한 3만 7,170톤, 수입량은 7.8% 감소한 8,01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4위인 미국으로의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물량은 8.2%, 금액은 4.5% 감소한 2만 7,290톤, 1억 9,15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 뒤를 이어 일본으로의 수출 물량은 9.3% 증가했지만,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한 2만 5,751톤, 8,94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의 수출량은 증가하고 있다. 이빨고기는 50%가 증가한 1,915톤이 미국 시장으로 판매되었으며 2022년보다 2% 감소한 가격인 톤당 2만 5,642달러의 가격에 수출되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월 31일자,

Dalekayaokraina.ru, 2024년 1월 24일자





러, 2023년 어획량 8.7% 증가

어획량 530만 톤 기록

전 러시아 어업 및 수출업자 협회(VARPE)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러시아의 수생 생물 자원 어획량은 530만 톤을 초과했으며 이는 2022년보다 8.7% 더 많은 양이다.

"감시 시스템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초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러시아 어민들은 530만 3,800톤의 수생 생물 자원을 어획하였다.(작년에 비해 8.7% 증가). 어획량의 약 75%가 극동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이 중 명태가 190만 4천 톤, 태평양 연어가 60만 8천 톤을 차지하였다. 정어리 어획량은 54만 3,900톤, 태평양 청어는 39만 6,100톤, 대구는 39만

1,200톤이었다. 해덕은 8만 1,900톤, 유럽 청어는 4만 톤, 카스피해 청어는 3만 1,400톤이 어획되었다. 또한 발트 청어 2만 5,700톤, 아조프해 멸치 1만 4,100톤이 어획되었다.

결과적으로 수산물 생산량(수생 생물 자원의 가공 계수 고려)은 310만 톤으로 2022년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는 예비 데이터이며 정부 간 쿼터에 따른 생산량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2023년의 실제 어획량은 더 많을 수 있다고 협회는 말하였다. 러연방수산청은 2023년 어획량을 530만 톤으로 잠정 추산하였다.

* 출처: RIA Novosti, 2024년 1월 15일자

美 트라이던트社, NFI 탈퇴

러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의견차 원인

미국 트라이던트 시푸드社(이하, 트라이던트)는 러시아산 수산물의 미국 유입에 대한 의견차로 인하여 미국 전국수산협회(이하, NFI)를 탈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들은 50년간 NFI의 회원이었다.

트라이던트를 비롯한 알래스카 수산가공업체는 최근 타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수산물도 금지하는 미국 행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환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NFI는 관세와 같은 다른 선택

지가 전면 금지 조치보다 나았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트라이던트는 NFI의 성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억제를 목표로 하는 국내외의 조치에 반하고 있으며, 또한 NFI가 중대한 공공정책에 대한 회원 간 의견차에 대하여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탈퇴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월 17일자, 미나토신문, 1월 22일자



러, 명태 A시즌 어획량 증가 예상

약 84만~85만 톤 어획 예측

러시아 최대 어장인 오흐츠크해 명태 어업이 1월 1일 시작되었다. 러시아 명태어업자협회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되는 명태 A시즌 어획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84만~85만 톤으로 예상된다.

2024년 오흐츠크해(북오흐츠크, 서캄차카, 캄차카-쿠릴)의 TAC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95만 1,500톤이다. 1월 8일까지의 누계 어획량은 3만 1,000톤이다.

A시즌은 4월 9일까지 100일간이며, B시즌은 10월 15일 시작하여 연말까지 계속된다. 협회에 따르

면 연간 어획량의 80%는 A시즌에 어획된다.

얼음의 상태나 기상 조건은 향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어 조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협회는 최대 일일 어획량이 1만 1,000톤에서 1만 2,000톤, 주간 최대 어획량은 7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협회는 수출뿐 아니라 국내 소비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어 향후 2년간 명태 제품의 국내 소비량을 기존의 2배인 35만 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1월 16일자

러 RFC, 청어 쿼터 보유 기업 2개사 매각

명태 어업 주력

러시아 최대 어업 그룹인 러시아어업회사(이하, RFC)는 청어 약 1만 5,000톤의 연간 쿼터를 보유한 자회사 2개사를 매각하였다. 최대 규모의 쿼터를 보유한 명태 어업에 주력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매각처는 명태, 오징어, 청어 생산 회사인 아케안리브플로트(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카)라고 다수의 러시아 매체가 보도하였다.

RFC에 따르면 이들의 전체 쿼터는 37만 6,000

톤이며 이 중 명태가 33만 톤을 차지한다. 러시아의 전체 어획 쿼터 중 RFC의 점유율은 15%에 달한다.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매각한 2개사는 Seld-D와 Seld-V이며, 아케안리브플로트는 2022년 27만 7,000톤을 어획하고 18만 톤의 제품을 생산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1월 15일자



러 명태 공장, 신형 장비 가동 개시

자본 낭비 없이 모든 생산 요구사항을 실현

모듈식 원리를 기반으로 한 다목적 냉동기가 최근 러시아 어업社(Russian Fishery Company) 공장에 설치 및 가동을 완료하였다. 이 냉동기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송 속도와 온도를 넓은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새로운 장비 덕분에 생선 냉동 시간이 2배 단축되고 생산량이 3배 증가하는 등 생산 성과가 크게 향상되었다. 동시에 온도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 제품의 품질 향상과 새로운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공장장은 말하였다.

냉동고를 설치할 때 복잡한 엔지니어링 작업이 해결되었다. 생산을 중단하지 않고 모든 위생 표준을 준수하며 공장 전문가가 장비를 설치하였다.

"우리 팀은 압축기실, 응축수 베이스, 냉동고 자체를 위한 공간을 설치하였다.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이 공장은 이 지역에서 유례가 없는 가장 강력한 장비를 갖추게 되었다. 모듈식 원리를 실현하면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다. 이제 자본 낭비 없이 모든 생산 요구사항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수석 엔지니어는 말하였다.

* 출처: Fishnet, 2024년 1월 15일자

日, 명태 24년 TAC 17만 6,000톤 제안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 TAC

일본 수산청이 삿포로에서 개최된 명태 2024년 관리 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TAC 의견 교환회에서 4계군의 TAC 안을 제시하였다.

태평양 계군은 자원 수준에 따라 전년도 대비 6,000톤 증가한 17만 6,000톤이 TAC가 제시되었고, 도호쿠 해역에서의 어획량 증가에 대응한

유보 TAC 범위도 설정되었다.

동해 북부 계군은 7,600톤 증가한 2만 2,900톤으로,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번 TAC 안은 2월 상순 개최 예정인 일본 수산정책심의회 자원관리분과회에 자문 예정이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1월 16일자



美, 러시아산 명태 수입금지 대상 확대

러시아 원산지 제품 우회 차단

미국이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 대상을 제3국에서 가공한 러시아 원산 수산물까지 확대하면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OFAC)은 지난 18일 금지 대상인 열 자릿수 품목 코드를 갱신하였다. 특히 제재의 허점이 될 가능성이 지적된 명태는 당초 안보다 15개 증가한 18개 품목이 되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22일 러시아산 연어, 송어, 대구, 명태, 게를 수입금지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였다. 당국은 같은 날 금지 대상 예정 품목의 코드를 공표하였으나, 명태는 3개 품목(신선육, 논오일 통조림, 오일 절임 통조림)에 그쳐 대상 품목이 누락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에서, 명태는 냉동 드레스, 냉동 필렛, 신선 필렛 등이 금지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연어 및

송어는 42품목, 게는 33품목, 대구는 24품목으로 이번 갱신 후에도 변경은 없었다. 정식 수입금지 품목은 차후 법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업데이트된 코드 목록은 이하와 같다.

• “Pollock:” articles defined at HTSUS subheadings 0302.55.1100, 0302.55.5000, 0302.59.5010, 0303.67.0000, 0304.44.0025, 0304.53.0025, 0304.75.1000, 0304.75.5000, 0304.79.1010, 0304.94.1005, 0304.94.1010, 0304.94.1090, 0304.94.9000, 0304.95.1030, 0305.69.1022, 0305.69.1042, 1604.19.1000, 1604.19.2500, including any subsequent revisions to the list of HTSUS classifications.

(사진 설명: 미국 재무부가 행정명령 1141와 관련된 FAQ 1157 문서에서 제공한 명태 관련 HTS 코드의 업데이트된 목록)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월 18일자, 미나토신문, 1월 22일자

1월 러시아 명태, 청어, 대구 어획량 증가

어획량 호조에 따라 가격은 하락 중

러시아 극동 지역 1월 명태 어획량이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하였다고 러연방수산청은 밝혔다.

1월 30일까지 명태 어획량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24만 8,400톤에 달하였다.

태평양 청어 어획량은 8만 3,500톤으로 70% 증가하였으며 태평양 대구 어획량은 1만 2,400톤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다.

러연방수산청은 어획량 호조로 러시아 국내 어

류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덧붙였다.

2023년 극동 명태 어획량은 190만 톤, 태평양 청어는 39만 6,000톤에 달하였다.

1월 22일 현재 중국, 러시아, 미국산 명태 필렛 가격의 최저가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여러 구매자와 판매자는 2024년이 이 품목의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2월 4일자



일본 연육 시장에서 알래스카의 지배력 위협

러시아 연육 수출, 일본 진출 후 기하급수 증가

미국산 연육의 최대 수입 시장인 일본의 러시아산 연육 수입은 러시아의 진출 이후 지난 4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2년에만 러시아의 대일 수출량은 약 1만 6,117톤으로 전년 대비 5배 증가하였다.

러시아는 2019년에 일본에 연육을 수출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 자료는 아직 집계 중이지만 비슷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사치품, 보드카 등의 수입을 금지하였지만, 지금까지 수산물은 면제해 왔다.

일본은 지난 10월 대러시아 제재를 업데이트하면서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일부 알래스카 명태 생산자들은 이러한 정서가 수산물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열량 섭취량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에서 식량을 정치적 제재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미국은 일본에 식품과 농산물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국으로, 전체 수입 시장 점유율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 측은 "최근 글로벌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망 압박이 일본의 식량 안보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하였다"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일본 진출은 특히 지난 1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서 재가공된 러시아산 수산물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규제 허점을 막는 행정명령에 따라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러시아가 일본과 같은 주요 시장에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여 미국 시장 점유율을 약화함으로써 미국산 연육 가격은 이미 2023년에 하락하였다. 일본의 러시아 명태 연육 수입량은 2분기에 전년 대비 26% 급증하였다.

* 출처: IntraFish, 2024년 1월 26일자





러 명태 어획량, 사상 최고치 기록

소비자 기호 및 취향 변화 따라 새 이미지 창출 필요성 제기

러시아 명태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명태 어획량은 196만 톤으로 2022년보다 3% 증가했으며, 총어획량은 지난 25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제품 생산량도 증가하였다.

2023년 말 전체 어획량에서 명태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36%에 달했기에 명태는 여전히 국가의 주요 어족 자원이라고 명태 협회는 지적하였다.

작년에는 13척의 외국 어선을 포함하여 275척의 선박이 명태 조업에 참여하였다.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어획량은 대형 선단이 제공하였다. 77 척의 대형 트롤 어선 가공업체가 전체 물량의 71% 이상을 어획하였다.

올해의 중요한 추세는 생산 선단의 효율성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많은 선박이 높은 연간 어획량을 보였다. 따라서 선박당 평균 명태 어획량은 7,100 톤이었다. 러시아 및 외국에서 건조된 대형 선박은 척당 1만 9,000톤에서 5만 8,100톤의 명태를 어획하는 등 더 높은 실적을 보였다. 전체 어획량 중 12%(23만 톤)는 육상 공장에서, 나머지는 해상에서 가공되었다. 2023년 명태 제품의 총생산량은 108만 8천 톤으로 7.4% 증가하였다.

지난해는 생산 업계에 어려운 한 해였다. 제재 압력으로 인해 판매 시장에 불확실성이 생겼고, 최종 수요 정체가 가격과 수요에 압력을 가하였다. 기업들은 생산 계획을 조정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필렛과

같은 수요가 적은 제품의 생산을 줄여야 하였다.

작년에는 명태 어획량의 약 32%가 심층 가공 제품 생산에 사용되었다. 필렛 생산량은 24% 감소한 9만 5,300톤, 필렛 생산의 부산물인 민스는 39% 감소한 1만 7,200톤이었다. 어민은 연육 생산 증가로 "손실"을 부분적으로 상쇄하였다. 연육 생산량은 2.5 배 증가한 4만 8천 톤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심층 가공품의 총생산량은 13% 감소한 17만 3,000톤을 생산하였다. H&G 생산량은 8% 증가한 72만 톤, 미절단 명태의 생산량은 30% 증가한 19만 9천 톤으로 증가하였다.

명태 어업자는 러시아 국내 시장을 개발하고 있다. 작년에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러시아 최초의 생선 브랜드 홍보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다. 작년 9월부터 극동 명태 브랜드에 대한 광고 캠페인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시작되었고, 웹 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으며, 수십 개의 흥미로운 비디오 레시피가 편집되고, 유명한 블로거와의 공동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전 러시아어업생산자협회(VARPE)와 캄차카 정부와의 협력으로 명태어업에 관한 영상이 제작되었다. 명태의 '리브랜딩'을 통해 러시아의 주요 상업적 자원인 명태의 국내 소비를 현재의 두 배인 어획량의 35~38%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명태협회장은 말하였다.

* 출처: Fishnews, 2024년 1월 26일자



러, 2027년까지 100척 이상의 어선 건조 예정 2단계 프로그램에 따라 60척 선박 및 10개 공장 건설

2027년까지 러시아에서 100척 이상의 어선이 건조될 예정이다. 러연방수산청장은 이미 20척의 선박이 건조되었고 올해 14척이 추가로 건조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2027년까지 총 105척의 선박이 모두 취항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추가 선박이 건조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다. 이 건설은 국가 조선업 발전에 대한 대가로 어자원 어획 쿼터를 제공하는 투자 쿼터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2017년에 시작된 투자 쿼터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는 새로운 국제 제재로 인해 2026년까지 연장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2월 29일에 서명되었다.

수산청장은 105척의 선박과 26개의 어류 가공 공장 건설 계약을 보고하였다. 투자 쿼터 및 계약 경쟁 프로그램 2단계에 따라 60척의 선박과 10개의 공장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모든 프로젝트는 러시아 국내 조선소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종류의 선박이 포함된다.

* 출처: Fishery.ru, 2024년 1월 27일자

일본의 전통 명태 요리가 점점 더 비싸져 원자재 가격 상승 대처를 위해 고군분투

일본어목협회(일본 내 500개 업체 소속)에 따르면, 미국산 명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품 가격이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다.

어목은 음력 새해에 일본인의 인기가 매우 많다. 또한 이 요리는 고품질 단백질 함량이 높은 제품으로 널리 광고되고 있다.

생산 비용의 상승은 포장재, 전기, 가스 및 유통 비용의 상승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명태 수입을 거부하고 미국산 명태 수입으로 전환한 것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명태 연육의 평균 가격은 2021년 3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2022년 10월에는 1년 전보다 kg당 185엔(1.25달러) 비싼 578엔(3.9달러)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재팬 타임즈는 작년 3월부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의 주요 어장 쿼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연육 생산업체는 직원 급여 증가로 인해 비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2023년 시간당 임금은 약 18달러로 8년 전보다 두 배나 많은 금액이다. 아직 생산을 완전히 자동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얗고 육즙이 많은 연육을 얻으려면 수작업이 필수적인 여러 공정이 존재한다.

* 출처: Fishnews, 2024년 1월 29일자



러 명태 기업, 생선 공장에 5,800만 달러 투자 부가가치 제품의 생산 확대로 아시아 공급 확대

러시아 명태 대기업 Gidrostroy社의 자회사인 Gavan社가 사할린섬에 52억 루블(5,810만 달러) 규모의 육상 가공 공장을 건설하는 계약을 러시아 극동·북극 개발 공사와 체결하였다.

이 새로운 단지는 하루 최대 500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며, 자동화 생선 가공 공장, 저온 저장고(5천톤), 사내 실험실, 직원용 주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올해 공사를 시작하여 2026년에 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새로운 시설에서는 명태, 대구, 연어류, 청어를 이용하여 필렛, 어분, 어유, 캐비어 등 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완제품은 러시아 및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수산물 수출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서구 시장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조정에 따라 발생하였다.

"우리의 목표는 사할린에 심층 가공 능력을 갖춘 현대식 육상 시설을 건설하고 국내외 시장에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며, 이는 지역 주민 고용을 통

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Gavan社의 대표이사는 말하였다.

새 공장의 원자재는 Gidrostroy社의 어선 및 타 어업 회사에서 구매할 것으로 밝혔다.

Gidrostroy社는 Russian Fishery社에 이어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명태 생산업체이다. 이 회사의 총 어획 할당량은 명태 29만 톤을 포함하여 약 33만 톤이다.

이 회사는 15척의 대형 및 중형 선박과 여러 척의 소형 선박, 5개의 어류 가공 공장, 연간 4억 마리의 어린 연어를 생산할 수 있는 11개의 연어 부화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새로운 시설은 Gidrostroy社가 가공 역량을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2020년 9월, 이 회사는 국가 투자 쿼터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 쿼터에 대한 대가로 시코탄섬에 원양 가공 공장을 설립하였다.

이 공장은 연육을 생산하는 러시아 최초의 육상 시설로, 하루에 최대 100톤의 연육을 생산할 수 있다.

* 출처: IntraFish, 2024년 1월 29일자



대만 쾡치조업선 대다수, LED로 전환

에너지 소비, 교체 비용 및 탄소 배출 줄여

대만의 원양 쾡치어선 대부분이 환경 보호를 위해 태평양에서 쾡치 조업 시 집어등으로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고 대만 수산청이 밝혔다.

오징어와 쾡치는 어획 방법은 빛을 활용하여 집어하는 등 어업 방법이 유사한 점이 있기에 많은 배들이 이 두 종류의 물고기를 잡기 위해 한 해에 두 번 바다로 나간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오징어 조업을 위해 남서 태평양으로 이동하여 조업 후 다시 돌아와 하반기에는 북태평양에서 쾡치 조업을 위해 다시 출항한다.

쾡치 조업은 주로 밤에 이루어지며, 인공조명이 물고기를 그물로 유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거 어부들이 백열전구나 고휘도 방전 램프(HID)를 사용하여 조업하였으나, 이러한 유형의 조

명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백열전구와 HID 등은 빨리 소모되어 교체 비용이 증가하므로 더 오래 지속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LED 등으로 전환하였다.

대만 가오슝에 등록된 쾡치조업선은 11월 말부터 태평양 쾡치 어기를 마친 후 첸젠항으로 귀항한다.

대만 선박이 잡은 쾡치는 국내외로 판매되고 있다.

지난 3월 수산청에 따르면 2021년 대만의 쾡치 어획량은 약 3만 톤, 2022년에는 약 4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대만 수산청에 따르면 대만은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의 주요 쾡치 조업국으로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 북서태평양수역에서 약 90척의 원양 조업선이 조업하고 있다.

* 출처: Focustaiwan, 2023년 12월 5일자





태국 원자력청, 일본 수산물 “안전” 발표

일본산 수산물 및 식재료 검사 결과

일본 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태국 원자력청은 2023년 12월 22일 일본산 수산물과 방콕의 일식당이 사용하는 수입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안전'이라고 공표하였다.

일본 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동국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ALPS 처리수의 해양 방출 이후 식품의약품위원회 사무국과 수산국이 샘플을 채취하고 원자력청이 방사성물질검사를 실시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수시 발표로

나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난해 11월 수산국이 발표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는 이번 원자력청의 발표는 수입수산물 120건과 쌀과 초밥 등 방콕의 일식당이 사용하는 수입식자재 55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1월 16일자

러, 영국과의 어업협정 파기 준비

영국의 러시아 최혜국 지위 제외 결정 이유

러시아는 지난 3월 영국의 최혜국 무역 지위에 서 제외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영국과의 어업협정 파기를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 언론 매체 이즈베스티야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와 농업부는 현재 협정을 파기하고 영국 선박의 바렌츠해 조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러시아 정부 당국은 "협정 파기는 러시아 연방에 심각한 외교 정책 및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소련과 영국 정부는 1956년 5월에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영국은 바렌츠해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어선은 자유롭게 항해하고 정박할 수 있었다.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체결되어 영구적으로 연장될 수 있으며, 한쪽이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출처: IntraFish, 2024년 1월 18일자



우크라이나, 남극해에 연구원 파견

양자 협력을 통한 해양 자원 국가 영향 증대

우크라이나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 활동 참여와 나미비아와의 양자 협력의 하나로 수산해양연구소 연구원을 파견하여 나미비아 어선(헬레나 은두메호)에 승선하여 FAO 88.1 및 88.2 하부 구역에서 이빨고기 조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옴서버가 나미비아 선박에 승선하여 이빨고기 어업에 참가하는 것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옴서버가 승선하여 국가 과학 옴서버와 협력하여 CCAMLR 사무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옴서버는 어획물에서 생물 샘플 채취, 목표 어종과

부산물의 어획량 데이터 기록하며 개체군 이동 모니터링과 자원 규모, 연령 구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어류에 태그를 부착한다.

2023/24 어기 조업은 어려운 기상 조건과 로스해에 형성된 다량의 위험한 유빙이 선박의 조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빨고기 저연승 어업은 수심 800에서 1,500미터 사이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 출처: FiskerForum, 2024년 1월 21일자

냉동 수산물, 10년 내 1.5배 이상 성장 전망

시간 절약 및 요리 간편에 대한 현대인의 요구 충족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는 냉동 수산물 시장이 2022년 825억 달러 수준에서 2023년부터 연평균 5.3%씩 성장하여 2032년에는 1,373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생선의 맛과 건강상의 이점을 보존하는 급속 냉동 및 저온 운송 기술의 발전이 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또 다른 요인은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더 깨끗하고 자연적인 장기 보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냉동 반제품은 시간 절약, 편의성 및 요리 간편에 대한 현대인의 요구를 충족한다.

냉동 제품을 사용하면 유통기한이 길어져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고 식당 및 기타 식품 서비스 매장에서 대량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판매 채널의 발달로 이러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생 냉동식품이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 이 제품은 열처리를 거치지 않고 불필요한 첨가물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더 신선한 맛과 섬세한 식감, 자연스러움으로 냉동 즉석식품과 구별된다. 따라서 생 냉동 수산물은 예측 기간 내내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Fishnet, 2024년 1월 22일자



日 2023년 수산물 수출액 9% 감소

중국 수입 제재 영향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2023년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3,081억 700만 엔을 기록하였다. 1~7월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하였으나,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한 8월 이후 수출 실적이 급감하였다.

냉동 가다랑어 수출량은 33% 증가한 1만 7,526톤이고, 수출액은 54% 증가한 44억 6,300만 엔이다. 냉동 날개가다랑어 수출량은 3배로 증가한 1만 4,692톤이며, 수출액은 2.9배로 증가한 59억 7,600만 엔을 기록하였다. 다랑어류의 전체 수출액

은 27% 증가한 227억 엔이다.

명태 수출량은 41% 감소한 18억 엔을 기록하였다.

국가·지역별 수산물(혼합 가공품 포함)의 수출액의 경우, 중국이 610억 엔, 홍콩이 35% 증가한 1,016억 엔이다. 그 외에는 미국이 14% 증가한 612억 엔, 태국이 4% 증가한 245억 엔, 베트남이 10% 증가한 238억 엔이다. 대만은 5% 감소한 330억 엔, 한국은 7% 감소한 228억 엔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1월 31일자

태평양 넙치 어획량 한도 삭감

어족 자원 회복 불투명

국제태평양넙치위원회(이하, IPHC)는 금요일에 넙치의 전체 어획량 한도를 확정하고, 어족 자원의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로 인해 총허용 어획량을 줄였다.

2024년 태평양 넙치의 전체 어획 한도는 작년 1만 6,769톤보다 4.6% 감소한 1만 6,003톤으로 정하였다. 이 종의 자원량은 오랫동안 감소해 왔으며 자원 상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IPHC 회의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넙치 어업은 성숙도가 50% 미만인 2012년산 어종을 주로 어

획하고 있으며, 아직 새로운 대형 어종이 유입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2023년 말까지 상업용 어선이 어획한 넙치는 11,022톤에 달한다.

위원회는 캐나다와 미국의 모든 상업용 태평양 넙치 어업에 대해 3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를 전체 금어기로 권고하였다.

IPHC가 승인한 어업 규정은 각국의 국내 법규에 따라 이행하도록 계약 당사국에 권고될 것이다.

* 출처: IntraFish, 2024년 1월 29일자



베트남, 수산물 수출 증대 위해 CPTPP 활용 소비자 선호도와 수요 정보 파악 필요

베트남은 무역 협정 발효 5년 만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과의 무역에서 특혜관세 덕분에 농림수산물 수출에 가시적인 변화를 보인다.

베트남 수산물 수출 및 생산자 협회(VASEP)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CPTPP 회원국에 대한 농림수산물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22억 달러에서 2022년 29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정을 통해 베트남 농산물의 호주 시장 접근도 쉬워졌다. 특히 베트남 새우의 호주 시장 점유율은 70% 이상으로, 협정 체결 전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 협정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생산자와 수출업자는 표준, 소비자 트렌드 및 제품 디자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무역 협정에 명시된 노동 및 환경 표준을 준수하며 각 시장의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멕시코, 칠레, 페루와 같은 라틴 아메리카 시장과 관련하여 베트남 기업은 현재 소비자 선호도와 수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들 시장에 대한 수출 매출은 아직 제한적이다.

* 출처: Dalekayaokraina, 2024년 2월 1일자

러시아 어류 사료 생산량 40% 증가 최대 규모 사료 공장 추가 건립 예정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러시아의 어류 사료(양식용) 생산량은 2022년 대비 39% 증가한 48,000톤으로 집계되었다.

러시아에는 약 20개의 어류 사료 생산 공장이 있다. 2022~2023년 간 전 러시아 수산해양학 연구소(VNIRO)는 양식 사료 생산 개발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2025년 1분기에 스폴렌스크 지역

의 멜콤비나트는 연간 10만 톤 이상의 생산 능력의 러시아 최대 규모의 어류 사료 공장을 설립 계획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상업적 양식업은 어류 생산 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식량 안보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 출처: Fishnet, 2024년 1월 31일자



美 매체, “생선 섭취의 이점” 분석

식단에 생선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이유

식품, 영양 및 건강 전문 미디어 ‘EatThis,NotThat’에서 생선 섭취의 이점을 이하와 같이 설명하였다.

참치, 대구, 고등어, 연어 등 생선을 많이 섭취하면 건강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메타 리뷰에 따르면 생선 섭취량 증가는 심혈관 건강 개선 및 사망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선은 열량이 낮고 탄수화물이 없으며 뇌 기능 및 심장 건강과 관련된 오메가-3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

생선의 이점은 이하와 같다.

1. 오메가3가 풍부하다.

생선의 특징 중 하나는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참치와 정어리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오메가-3는 뇌 기능 지원부터 염증 감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한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연어, 고등어, 참치, 청어, 정어리 등 일부 생선은 다른 생선보다 오메가-3가 더 풍부하다고 한다.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할 수 없는 필수 영양소이지만 만성 염증과 싸우고 뇌와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강력한 효능이 있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운동 능력에도 도움이 된다.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의 가장 강력한 식이 공급원이며, 일주일에 1~2회 지방이 많은 생선 1인분을 섭취하기만 하면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다.

2. 열량이 낮다.

다른 단백질 식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량이 낮은

생선은 열량을 고려한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한 훌륭한 기초를 제공한다. 가장 살코기가 적은 생선으로는 대구, 가자미, 해덕이 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3온스(약 85g) 대구는 67칼로리를 제공한다.

참고로, 3온스의 틸라피아는 100칼로리에 불과하지만, 일반 스테이크 3온스의 칼로리는 거의 200칼로리에 달한다. 따라서 틸라피아 등 흰살생선 대부분은 감량용 저열량 식단에 큰 도움이 된다.

3. 비타민 D의 좋은 공급원

연어와 참치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뼈 건강, 면역 기능 및 전반적인 웰빙에 필수적 영양소인 비타민 D의 천연 공급원이다. 비타민 D의 식이 공급원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다. 미국인들은 강화제, 인공적으로 첨가된 비타민 또는 유제품과 오렌지 주스를 통해 대부분의 비타민 D를 섭취하지만, 미국인 절반은 여전히 결핍 상태이다. 연어와 청어는 생선 중 비타민 D 함량이 가장 높으며, 4온스(113g) 분량의 연어 한 마리에 일일 권장량의 100%가 함유되어 있다.

4. 생선은 단백질 함량이 높다.

단백질은 근육 성장과 회복을 돕고 포만감을 높이며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하는 필수 다량 영양소이다. "평균 3온스 분량의 생선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 있다. 연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선은 지방이 적기 때문에 생선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다.

5. 식욕 억제



생선은 훌륭한 저지방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채우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식욕을 억제한다.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에 비해 가장 포만감을 주는 다량 영양소이기에 다량의 단백질 함량으로 오랜 기간 배고픔에 대한 욕구를 줄여준다. 즉,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체중 감량과 과식 예방에 도움을 준다.

6. 심장 건강에 도움

정기적인 생선 섭취는 혈압을 낮추고 중성지방을 감소하며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 덕분에 심장 건강에 이롭다.

생선을 먹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흔한 조기 사망 원인인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가장 낮다. 생선은 소고기나 돼지고기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단백질 공급원을 대체할 수 있어 심장을 더 건강하게 한다.

7. 요오드의 풍부한 공급원

바다 생선은 갑상선 기능과 신진대사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인 요오드의 훌륭한 공급원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바닷물고기는 민물고기보다 5~10배 더 많은 요오드를 함유하고 있다. 요오드는 식욕과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것 외에도 갑상선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오드는 해수에 가장 풍부한 미네랄이기 때문에 식단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 요오드 공급원은 거의 없다. 다행히도 생선은 이 중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8. 육류 섭취를 줄이려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

동물성 단백질을 최소화하고 주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생선은 가끔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저지방 단백질을 제공한다.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은 과일과 채소를 많이 포함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은 소량만 포함하고 있다. 식물성 식단으로도 불리는 이러한 식단은 동물성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고도 식물에서 항산화 물질을 충분

히 섭취하는 동시에 철분과 B12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서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어서 건강에 매우 좋다. 생선은 다른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보다 포화지방 함량이 낮고 식물성 식단의 영양학적 이점을 배가한다.

9. 생선은 활용도가 매우 높다.

생선은 구이부터 데치기, 타코, 샐러드에 이르기까지 주방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요리의 필수품이 되었다. 생선의 아름다운 점은 생선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요리에 접목할 수 있다.

10. 가격도 저렴

수산물이 비싸다는 일반적인 오해와는 달리, 저렴한 생선이 존재하며 이는 영양학적 이점을 희생하지도 않는다. "연어와 황새치의 비싼 가격 때문에 생선을 자주 먹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생선은 통조림과 냉동 형태로 널리 판매되고 있으며 신선한 생선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영양소와 효능을 그대로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참치, 고등어, 연어 통조림은 식단에 생선을 추가할 수 있는 저렴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11. 요리하기 쉽다.

구운 생선은 매주 바뀌는 식단에 편리하게 추가할 수 있다. 특히 바쁜 일정으로 영양가 있는 저지방 단백질 공급원을 섭취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그리하며 포스트코로나 이후 요리의 용이성에 대한 관심은 더욱 강화되었다. 대부분의 생선은 조리 시간이 짧으며, 팬이나 오븐 구 이외에 스팀로 구울 수도 있다. 특히 흰살생선은 맛이 매우 부드럽고 다양한 조미료와 잘 어울리므로 까다로운 입맛을 가진 분의 입맛에도 만족을 제공한다.

* 출처: Eat This, Not That, 2024년 2월 5일자



나스닥 상장社, 최초의 3D 프린팅 새우 출시

미국, 배양육 판매 허용

나스닥에 상장된 이스라엘의 재배육 및 바이오프린팅 회사인 Steakholder Foods社가 3D 프린팅 식물성 식품 라인의 최신 제품인 새우를 출시하였다.

실제 새우의 식감과 풍미를 모방하도록 설계된 이 제품은 스테이크홀더 푸드의 식품 기술팀이 개발한 새우맛 잉크를 사용하여 생선 및 해산물 프린팅용으로 설계된 스테이크홀더 푸드의 독점적인 드롭젯 프린터로 정밀하게 프린팅되었다.

이 제품은 규모의 경제가 발전하여 가격 경쟁력 있는 세포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식물성 또는 잠재적 하이브리드(식물성 및 양식성 결합) 기반의 수산물 인쇄 제품 포트폴리오에 추가된 최신 제품이다.

"새우 시장은 6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계속해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라고 Steakholder Foods社의 대표는 말하였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 식물성 3D 프린팅 장어를 출시하였다.

"이번 달에 두 번째 식물성 3D 프린팅 해산물 신

종을 공개함으로써 스테이크홀더 푸드는 2024년에 첫 번째 드롭젯 프린터를 판매 및 배송할 수 있는 입지를 다지고, 파트너와 고객에게 확장하는 글로벌 해산물 시장의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환경에 올바른 영향을 줄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10월에는 3D 식품 프린팅을 전문으로 하는 오스트리아의 Revo Foods社가 2025년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회사는 최근 독일 최대 유통업체 중 하나인 레베(REWE) 슈퍼마켓 체인에 3D 프린팅으로 만든 식물성 연어 필렛을 출시하였다.

지난 6월, 미국은 규제 당국이 세포 배양 수산물 제조업체인 Upside Foods社와 Good Meat社가 생산한 두 가지 배양육 제품의 판매를 승인하면서 2020년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배양육 판매를 허용한 국가가 되었다.

* 출처: IntraFish, 2024년 1월 25일자





바다의 마음

이 도 운

씩지 않기 위해

물새 발톱은 바다를 할퀴고

바다는 바람에 입김을 분다.

여기 바다의 은총(恩寵)이 잠자고 있다.

흰 돛(白帆)은 바다를 칼질하고

바다는 하늘을 간질여 분다.

여기 바다의 아량(量)이 간질여 있다.

낚은 그물은 바다를 읽고

바다는 대륙(大陸)을 푸른 보로 짠다.

여기 바다의 음모(陰謀)가 서리어 있다.





1월 오징어 국내 동향

전월 대비 생산량 감소, 소비자가격 상승

□ **생산동향**(1월 오징어 생산량 951톤으로, 작년 대비 3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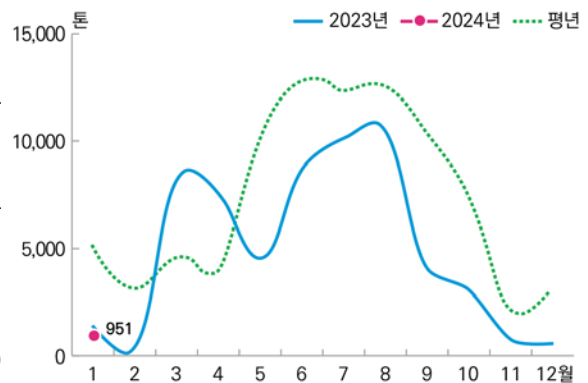
2024년 1월 오징어 생산량은 전량 연근해산으로 전월 대비 59.8% 증가한 951톤이었다.

그러나 부진한 어황이 이어지면서 작년 및 평년보다는 각각 30.1%, 81.6% 적었다.

어획된 물량 중 76.7%가 선어로 위판되었으며, 다음으로 활어(21.8%), 냉동(1.5%)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포항수협(145톤), 울산수협(107톤), 강구수협(103톤) 등 동해안 지역의 위판량이 659톤으로 전체 위판량의 69.5%를 차지하였다.

원양산의 경우, 조업은 예년보다 다소 빨리 시작되었으나 1월 말 기준 반입 실적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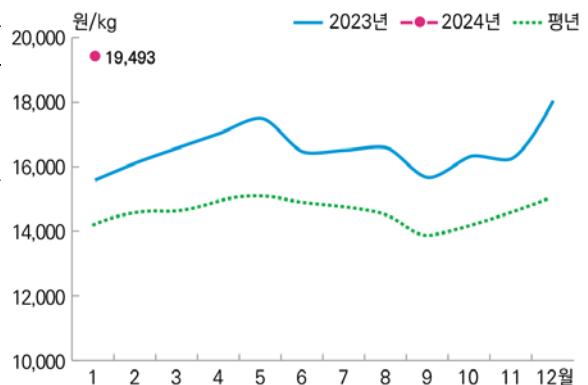


□ **가격동향**(1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8% 상승한 kg당 19,493원)

1월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kg당 6,554원으로 전월 대비 연근해산 생산이 늘면서 2.8% 하락했음. 작년보다는 31.1% 높게 형성되었다.

오징어(신선냉장) 소비자가격은 kg당 24,573원으로 신선냉장품 공급 증가와 대형소매점 할인행사로 전월 대비 5.2% 하락했으나, 작년 및 평년보다는 각각 6.0%, 22.2% 높았다.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19,493원으로 전월보다 7.6% 상승했으며,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4.8%, 37.7% 높았다.





□ 수출입동향(1월 오징어 수입량, 전월 대비 38% 증가)

1월 오징어 수출량은 전월 대비 46.1% 감소한 544톤으로, 작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30.3%, 38.0% 적었다.

제품 형태별로는, 기타(조제 및 저장처리) 오징어(268톤), 냉동오징어(204톤)였으며, 기타 오징어는 미국(195톤), 냉동오징어는 중국(145톤) 등으로 수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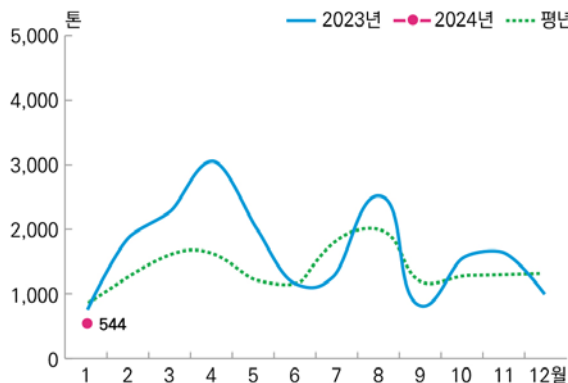
1월 오징어 수입량은 2만 3,541톤으로, 중국산 수입이 늘면서 전월 대비 38.3% 증가하였다.

작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6.4%, 11.2%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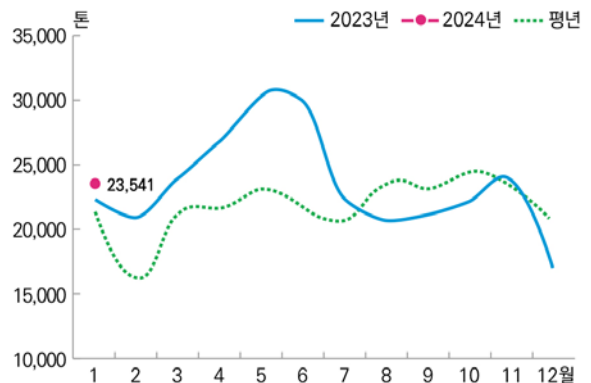
주요 수입국은 중국(12,108톤)과 페루(8,766톤)로, 상위 2개국으로부터 수입된 물량이 전체 수입량의 88.7%를 차지하였다.

한편, 중국산의 경우 냉동 및 조미오징어, 페루산은 기타(조제 및 저장처리) 및 냉동오징어 비중이 높았다.

〈 오징어 수출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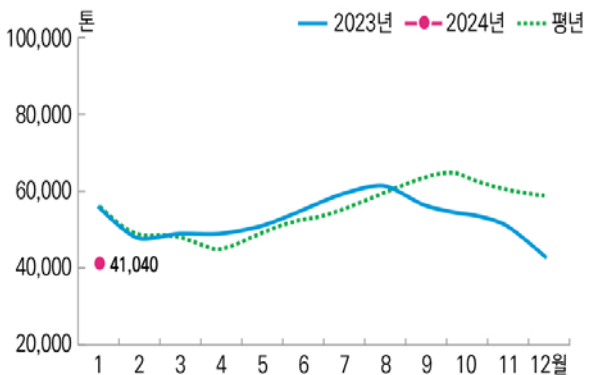
〈 오징어 수입량 추이 〉



□ 재고동향(1월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3% 감소)

1월 말 오징어 재고량은 4만 1,040톤으로 전월 대비 2.7% 감소하였으며, 작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5.3%, 26.5% 적었다.

연근해산 재고량은 1만 502톤으로 전월 대비 3.5% 감소했으며, 원양산 재고량은 2.4% 적은 3만 538톤이었다.



* 출처: KMI 수산물측 2월호



1월 명태 국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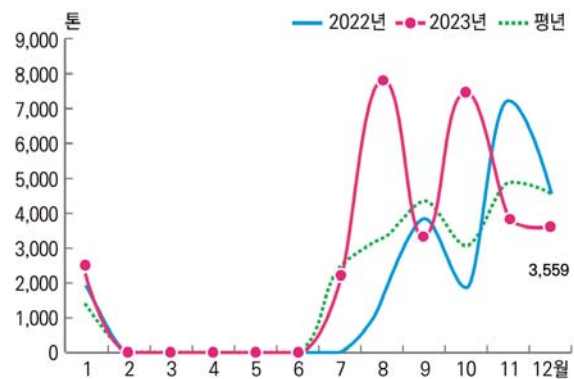
전월 대비 수입량 증가, 소비자가격 보합세

□ **생산동향**(12월 원양명태 반입량, 전월 대비 감소한 3,559톤)

12월 원양명태 반입량은 3,559톤으로 전월보다 8.2% 감소하였으며, 전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22.6%, 20.2% 적었다.

2023년 반입량은 3만 745톤으로 '러-우' 사태로 조업 시작이 늦어져 어획량이 적었던 전년에 비해 47.7% 많았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26.4% 많았다.

2023년 원양명태 어획량은 전년(21,630톤)에 비해 31.8% 많은 2만 8,499톤이었으며, 원양명태 쿼터 소진율은 99.9%로 전년(75.9%)보다 높았다.



□ **가격동향**(1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보합세인 kg당 5,282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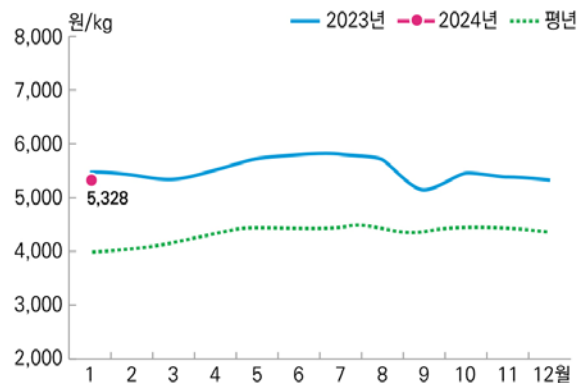
1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kg당 2,399원으로 전월과 비슷하였다.

평년보다 4.5% 높았으나, 작년 동기보다는 6.6% 낮았다.

이는 '러-우' 사태로 인한 명태 공급 차질 우려로 상승했던 가격이 2023년 초에도 높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보합세인 kg당 5,328원이었다.

작년 동기보다는 2.1% 낮았으나, 평년보다 36.5% 높은 수준이었다.





□ 수출입동향(1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34% 증가한 4만 657톤)

1월 명태 수출량은 2,167톤으로 전월 대비 39.5% 감소하였다.

작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49.6%, 30.2%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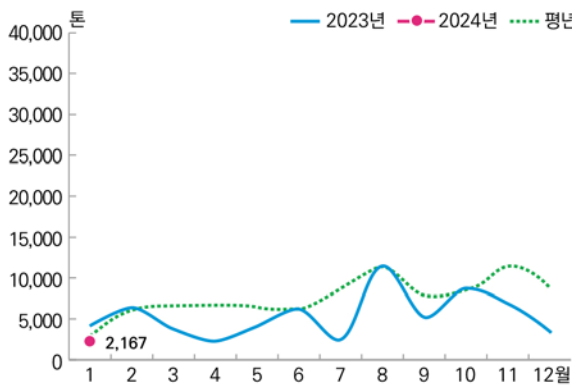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는 중국으로 냉동연육(1,050톤), 베트남으로 냉동명태(445톤), 중국으로 냉동필렛(188톤) 등이 수출되었다.

명태 수입량은 4만 657톤으로 러시아산 냉동필렛 수입이 늘어 전월 대비 34.2%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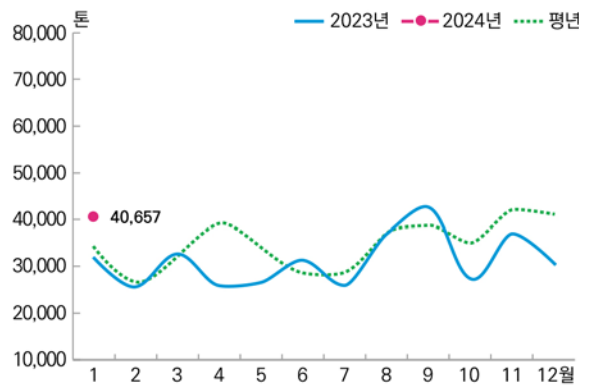
작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28.7%, 19.0% 많았다.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는 러시아산 냉동필렛이 1만 2,245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러시아산 냉동명태(11,890톤), 미국산 냉동연육(6,526톤), 러시아산 냉동연육(5,570톤) 등의 순이었다.

〈 명태 수출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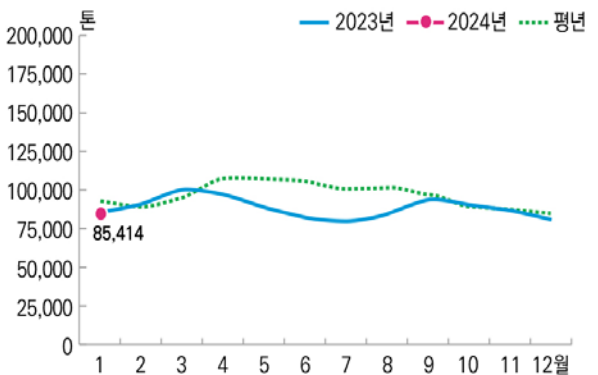
〈 명태 수입량 추이 〉



□ 재고동향(1월 재고량, 전월 대비 증가)

1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8만 5,414톤으로 반입은 종료되었으나 수입이 늘어 전월 대비 5.9% 증가하였다.

작년 및 평년보다는 각각 1.0%, 6.6% 적었다.



* 출처: KMI 수산물측 2월호



어획량 급감한 오징어 자원, 해외 대체어장 찾아 2024년에 동아프리카 수역 대상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 추진

해양수산부는 작년보다 10억 원 늘어난 올해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 예산 24억 원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수역 등에 투입하여 새로운 어장 개척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공해조업 규제 및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정책 강화로 인해 새로운 해외 어장개발이 필요해짐에 따라, 2001년부터 새로운 해외어장을 개척하여 수산자원을 확보하는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북태평양 쾡치, 대서양 오징어, 남빙양 이빨고기(메로) 등 11개의 새로운 해외어장을 개척한 바 있다.

또한, 2023년부터는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자로 기존 원양어업인(단체) 외에 연근해어업인(단체)까

지도 인정하여, 러시아 수역의 명태·오징어와 서아프리카(기니비사우) 수역의 조기·민어 등 다양한 수산자원을 조사하였다.

올해는 특히, 최근 오징어 어획량의 감소* 추세에 따라, 오징어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케냐 등 동아프리카 수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연근해 오징어 어획(만 톤): (‘14) 16.3→(‘15) 15.5→(‘17) 8.7→(‘20) 5.9→(‘22) 3.6

원양 오징어 어획(만 톤): (‘14) 16.7→(15) 15.1→(‘17) 4.6→(‘22) 4.8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이 풍부한 새로운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우리 어선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선박 증서 14종, 2월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

입어허가 및 조업 할당 소진량 실시간 확인으로 불법어업 사전 예방

해양수산부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선박 증서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2월 1일(목)부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그간 선박 증서는 종이로만 발급받을 수 있어 분실되거나 훼손될 때마다 이용자가 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발급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자 선박 증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선박 증서는 해양수산부가 발행하는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 증서 14종*이다. 이 용자는 스마트폰,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선박 증서를 조회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쿼알코드(QR

Code) 스캔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증서의 유효성도 검증할 수 있다.

* 선박국적증서, 선박안전관리증서, 안전관리적합증서, 국제선박보안증서, 국제톤수증서 등

해양수산부는 서비스 운영에 앞서 업계 등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23일(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업계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며, 앞으로 3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기능을 보완·개선한 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선박 증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증서 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선박전자증서 발급시스템 누리집(www.gicoms.go.kr/vecs)에서 확인하거나,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 선박전자증서발급시스템

로그인

이용가이드 Q&A 공지사항

안전한 항해의 길에 함께하는 선박전자증서
쉽고 빠르게 이용하세요!

선박증서번호

증서번호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서파일

증서파일로 유효성 확인

원부파일로 유효성 및 잔여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지사항 | 선박전자증서 홍보 리플렛 | 2024-01-22 | 이용방법이 궁금해요! | 이용가이드 보기



해수부,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수립 발표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해양수산부는 우리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4일(수) 발표했다.

오늘날 원양산업은 자원 감소로 악화하는 조업여건, 안전·선원인권 확보 등 국제규범 이행 강화 요구와 선원 수급 불안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선진화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 원양어업 국제규범 선도

먼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조업감시센터와 지역수산기구, 비정부기구 등과의 국제기구 공조를 통해 IUU 어업에 대한 감시 능력을 확대하고, 직접 조업하지 않는 운반선 등도 불법어업 관여가 의심되는 경우 감시 대상에 포함해 불법 어획물을 차단한다.

또한, 직접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조업 감시와 수산자원 과학조사 등을 수행하는 국제 옵서버도 현재 67명에서 80명까지 확충하고, 옵서버 미승선 선박 등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AI) 영상 녹화분석을 활용한 전자 모니터링(EM) 시스템의 개발·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정적인 선원 수급

국적 원양어선원 육성을 위해 어선에 승선하는 수산계 고교 재학생에 취업준비금 등을 우선 지원하

고, 일반인들도 해양수산연수원의 어선 해기사 과정에 지원하여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생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해양원격의료 확대, 가족 해외 현지 방문 지원 등을 통해 원양어선원의 근로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전화상담센터, 전자메일 등 신고채널을 확대하는 등 인권 보호·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해외어장 확보

기존 입어 어장 외에 경제성은 있으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입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장 보유 국가를 대상으로 어항·접안시설, 가공·유통설비 등을 지원 및 관리하고, 수산자원관리 기술 이전, 교육 훈련 등 연안국 수요 맞춤형 공적개발원조(ODA)를 강화하는 한편, 아프리카 등으로 자원조사 범위도 확대하여 해외 신규 어장 개척을 지원한다.

▲ 원양산업 생태계 고도화

선령 30년을 초과한 노후 원양어선의 신조·수리자금을 지원하여 조업 안전과 조업여건을 개선하고,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친환경 어구·설비 등에 대한 용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양선사와 국내 수산식품 수출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가치소비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친환경 어업 관련 국제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원양수산물의 친환경 가치 향상을 지원한다.



새빙연구선 ‘아라온호’, 남극 바다 응급 환자 긴급 지원 연구활동 멈추고 즉시 이동하여 우루과이 국적 응급 환자 의료 지원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대한민국의 새빙연구선 아라온호가 지난 25일 남극 바다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의 치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남극 아문센해에서 연구 활동 중이던 아라온호는 한국시각(이하 모두 한국시각) 지난 25일 오전 10시, 조업 중이던 우루과이 국적의 선박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며 칠레 해난구조센터로부터 긴급 지원을 요청받았다.

아라온호는 연구활동을 멈추고 즉각 요청 지점으로 이동하여 26일 오전 1시경 현장에 도착했다. 아라온호 의료팀은 선박에 승선해 응급 환자를 진찰했고, 한밤중에 국내에서 대기 중이던 극지의학회 소속 의사 4인도 원격 협진으로 현장을 적극 지원했

다. 아라온호 의료팀은 환자 진료 후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신속한 후송을 권고했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아라온호에서 보유 중이던 응급의약품도 전달했다.

26일 오전 6시경 상황 종료 후, 우루과이 선박은 영국령 포클랜드제도로 이동을 시작했고, 아라온호도 연구 현장으로 복귀했다.

아라온호는 2020년에도 코로나19로 파푸아뉴기니에서 고립된 우리나라 원양어선 소속 선원들의 귀국을 도운 바 있고, 2015년에는 남극 바다 얼음에 갇힌 원양어선 등을 구조한 적도 있었지만, 남극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를 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수부 김정례 주무관 국제수산기구 총회 의장 선출 2024년 우리나라 전갱이 어획한도량은 작년보다 16% 증가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에콰도르 만타에서 개최된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 제12차 총회'에서 국제협력총괄과 김정례 주무관이 차기(2024.3.~2026.2.) 총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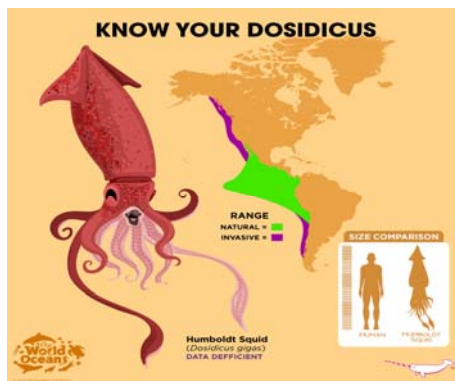
* SPRFMO(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sation): 남태평양 전갱이, 대왕오징어 등 비참치어종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2012년에 수립된 국제기구(우리나라, 뉴질랜드, 미국, EU, 중국, 칠레, 호주 등 총 17개 회원국으로 구성)

김 주무관은 그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등 주요 국제수산기구에서 총회 의장, 이행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의 총회 의장 및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의 총회 부의장으로서 국제 논의를 이끌며 그 역량을 펼쳐 왔다. 이를 통해 보여준 탁월한 의사진행 능력을 인정받아, 미국, EU, 호주 등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이번 남태평양 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 총회 의장직까지 맡게 되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2024년 전갱이 어획한도량은 2023년의 12,753톤보다 16% 증가

한 14,805톤으로 결정되었다.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 설립 초기에 우리나라, 칠레, EU 등 전갱이 조업국들이 다년간 어획량을 감축하며 자원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의 어획한도량은 2019년 7,578톤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는 해외 수역에서 우리나라 조업이익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산자원 보존, 조업감시, 기후 변화 등 국제수산기구에서 다루는 주요 현안을 선도하며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특히,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 김 주무관의 의장 임기 동안 선원 근로 표준 마련, 해양보호구역 설정, 기구 운영 효율화 등 주요한 사안들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설립 10주년 맞아

남극 빙봉 붕괴 과정 세계 최초로 규명 등 남극연구 발전에 기여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남극 대륙연구의 전초기지인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가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12일 동남극 테라노바만에 설립된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는 세종 과학기지에 이어 우리나라가 남극에 세운 두 번째 과학기지다. 장보고 과학기지는 남위 62도의 킹조지섬에 있는 세종 과학기지에 비해 남극 중심부로의 접근이 쉬워 남극 빙하 및 대륙연구에 큰 역할을 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연구진은 지난 10년간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를 통해 본격적인 빙하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해수면 변화의 주요 요소인 ① 남극 빙봉*의 붕괴 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2018)하고, ② 미국·영국과 함께 스웨이트 빙하** 연구를 추진(2019~2022)하였으며, ③ 난센 빙봉 연구를 통해 빙봉 안정도 평가모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등 해수면 상승 예측 체계 기반을 마련하였다.

* 남극 대륙빙하와 이어진 수백 미터 두께의 얼음덩어리로, 바다에 떠 있으면서 빙하가 바다에 빠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 남극의 초대형 빙하 중 하나로, 면적이 약 19만 2000㎢에 달함

다음으로, 극지 연구의 지평을 대륙까지 넓히는 성과도 있었다. ④ 남극운석 탐사를 통해 확보한 운석으로 운석-지질 연구와 빙하-빙권 연구를 추진

(2014~)하였으며, 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두꺼운 빙봉 시추 기록을 세워(2023) 얼음으로 덮여있던 바다를 탐사하는 데 성공했고, ⑥ 장보고 기지부터 남극 대륙연구 거점까지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육상 루트를 개척(2023)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아울러, ⑦ 우리나라 주도로 장보고 과학기지 인근 인익스프레시블섬의 남극특별보호구역 지정(2021)에 앞장서고, ⑧ 인익스프레시블섬에 사는 아델리펭귄의 취식지 변화도 최초로 확인하는 등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극지연구의 위상을 높였다. 이 외에도 남극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세계 최대 해양보호구역인 남극 로스해와 인접한 장보고 과학기지의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⑨ 로스해 생태계 보존 방안에 대한 종합적 연구(2017~2021)를 추진했으며, ⑩ 세계 최초로 남극 이빨고기(메로)의 염색체를 해독하는 데 성공(2020)하며 남극해 주요 조업국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의 지지와 대원들의 사명감 덕분에 지난 10년간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의미 있는 연구성과들을 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그간의 연구성과와 기지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극지 연구 선도국으로의 도약’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협회장	윤명길 회장	589-1600	
해외협력본부장	신현애 상무	589-1602	해외협력본부
경영지원본부장	이형균 이사	589-1603	경영지원본부
비서	조한솔 대리	589-1601/1621	비서, 출납업무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경영지원본부	기획홍보부	김효상 과 장	589-1609	기 획
		조성주 과 장	589-1608	홍 보
		김민재 주 임	589-1620	원양뉴스, 생산통계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 장	589-1610	총 괄
		김영수 과 장	589-1611	무역제도, 수출통계
		최은혁 주 임	589-1619	노사, 선원
	총 무 부	공길웅 과 장	589-1605	총무, 자금
		조성환 과 장	589-1606	서무관리, 차량운영
		이인수 사 원	589-1607	총무 지원

구 분	성 명	전화번호	담 당
해 외 협 력 본 부	해외협력1부	최봉준 과 장 589-1613	국제협력
		백상진 주 임 589-1614	참치선망
		박찬준 사 원 589-1620	참치연승
	해외협력2부	진호정 부 장 589-1616	총 괄
		최상진 주 임 589-1617	오징어, 기타트롤
		이승환 사 원 589-1618	북양, 공치
경 영 지 원	부 산 지 부	이성재 이 사 051-253-3388	총 괄
		김현애 과 장	확인업무(수출,반입)
	공인계량소	이동주 팀 장 051-253-3391	차량계량
		최광준 팀 장	차량계량

해외수산물유통센터	센터장	이상목 센터장	044-868-7360	총괄
	기획운영팀	이석우 팀장	044-868-7834	행정 총괄, 기획
		김단비 행정관	044-868-7837	예산, 인사, 명예수산물
	해외진출팀	이은 행정관	044-868-7836	ODA, 해외투자교육
		신승호 행정관	044-868-7838	통계, OFIS

해외수산물유통센터	국제협상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국제(수산)기구
		김수민 전문관	044-868-7863	국제(수산)기구
		이승은 전문관	044-868-7831	국제(수산)기구
		-	044-868-7833	국제(수산)기구

■ 팩스: (서울) 02-589-1630/1, (부산) 051-253-3392, (세종) 044-868-7840 ■ 홈페이지: www.kosfa.org

명예해양수산물관	세네갈	김점봉 수산물관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피지	김종태 수산물관	679-330-7188 ckpfj@naver.com
	인도네시아	박상천 수산물관	62-21-2287-4165 scpark@top-bridge.com
	사모아	오시영 수산물관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수산물관	64-3-344-1617 seajho@xtra.co.nz
	모리셔스	이동춘 수산물관	230-217-1700 kmarinelee@gmail.com
	아르헨티나	이상우 수산물관	54-223-495-0712 kargeexport@gmail.com
	가나	이윤홍 수산물관	233-303-200995 skshipafrica@yahoo.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수산물관	675-321-8137 jc651016@gmail.com

원양산업 제1166호	발행	2024년 2월 15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울라-9183호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현명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통조림용 참치조림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조기류(민어과)

제수용 생선으로 적격



공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납니다.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